

推理劇

血 案 案 (4幕4場)

No. \_\_\_\_\_

◎신문기사(부칙)

혈가사 (血袞裳)

원곡 고 박병호 (朴秉鎬)

각석 (脚石) 김태근 (金兌根)

제 1 부

때 1925년 가을

북사들, 고 이상하 (李尙夏)의 기록

나오는 사랑들

No

20X10

No

20X10

부인 (김씨) 52세

~~원주 김 가련의 김은 반달~~

그의 딸  
숙자 (李淑子) 19세

최중익 (崔重植) 28세

옥매 (玉梅) 20세

서참봉 (徐現) 42세

각시 45세

하남 (下男) 40세

무<sup>✓</sup>대, 자락의 너른 잠원, 증상이 다

문으로 통하는 공간, 가련의 사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No

채와 마강, 좌편이 바깥쪽으로

있는 빈다. 좌편 마강에 걸린

원탁 (圓卓) 의 자 몇 개.

무대는 텅 빈 공간이라.

부인 (막냇감을 - 그리고 난 듯, 기 감

백대로 늦화 재떨이를 랑랑치면)

옥매야 - (사이) 옥매야! 옥매

거기 앉느냐? 옥매야! 이년들

은 부르면서 대답이 석 달간

20X10

20X10

No

20X10

의 아, 아 옥매 아 !!

북은 자그리 검검리마의 옥매 함

구리마에 손을 갖으며 등강

옥매네 - (노리를 팔리다)

부인 이년들 한 번 부르라간 북소리

가 빠리겠다. 왜 빨라 나오길

북하는 가아!

옥매 지금 나왔어요.

No

20X10

부인의 지금 나왔어는가 유야, 북소리

빠리드록 불렸는데

20X10

20X10

No

음 마 아 이 그 랐 소 유 , 마 남

부 인 자 녀 단 보 아 라 교 박 교 박 말 대 구

어 . 석 당 치 기 못 할 라 !

음 마 세 - .

부 인 ( 말 바 를 백 백 리 우 다 가 ) 조 금

있 으 면 사 람 붕 이 오 질 레 나 , 오 거

든 말 이 야 무 손 쥘 계 를 대 서 든

기 글 돌 려 보 나 라 응 ,

음 마 무 손 일 르 그 러 십 나 라 ?

부 인 조 금 으 미 안 해 할 것 없 라 , 사 람

20X10

20X10

20X10

20X10

No

봉과 나는 못 볼 시간이 됐어

나 말이야.

음 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제까진

안 그러시러나

부인 어제 밤부터 보기가 딱 싫어졌

어 그래.

음 매 예? 바로 어제 밤부터요?

부인 조금 그런 감정이 있나

음 매 마보, 그 감정을 제가 한번

봐볼까요?

20X10

20X10



No

부 인 아 니 ? 네 가 어 렷 게 알 리 말 아

20X10

냐, 그 까닭 을 ?

부 마 사참봉 나 리 가 만 보 계 상 가 보

말 을 했 죠.

부 인 아 니 ? 그 것 을 네 가 어 렷 게 ?

부 라 사참봉 분이 맨 날 드나 들면 사 아

침 을 절 마 알 랑 거 라 는 것 이 마

보 래 돌 을 떨어 내 라 는 그 런 라 는

길 보 무 다 알 고 있 어 는,

No

부 인 아 니. 목 매 아 보 주 라 y 누구 누구

20X10

20X10

20X10

말이 누 응 ?

우 마 조함의 (趙象辭) 영감이라 한승  
 지 영감체서 드 자 그러요.

부 시 나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왜  
 진작 말하리 았았느냐.

우 마 아나 마님. 그러면 사함봉에게  
 돈을 펼겠습니 까요?

부 시 조금 잘못 했으면 그럴번 했어  
 이래 사함봉 증양해서 스스로 럼았이  
 들어 신라.

No

20X10

No

20X10

No

사한봉 아 - 일제 할 나 라.

부 인 ( 열 두 으 르 흘 거 브 미 ) 나 시 으

십 시 으. 이 리 르 앓 으 시 르.

목 따, 의 라 에 앓 는 사 한 봉 을 귀 박 는

시 남 을 왜 마 안 으 르 티 랑.

사 한 봉 아 제 밤 안 일 제 앓 앓 습 나 라. 부

인 제 사 돌 아 가 신 귀 글 발 이 을 라 <

한 4 천 원 앓 습 나 라. 나 르 이 레 는 <

한 밀 천 갑 앓 으 나, 부 인 계 부 랑 한 <

그 도 물 그 만 습 시 라.

No

No

부 인 (얼굴은 러마) 네, 그러면 말을  
 하신 그 도은 필러 프리지  
 아로 피겠수요. 아랍계 하신 말  
 씬이라 여러구제 알아보고 잇는  
 공의레. 변돈을 쓰는 것보라 공  
 돈의 상겠수요 그 할 할 됐습  
 다.

20X10

시 함봉 네. 그 할 제 됐습니라.

No

부 인 그 런 제, 일기 누가 읽었습니라?  
 시 함봉 네, 정남작 (男爵) 이 말이 읽었

20X10

No.

4 가.  
 부 인 을 " " , 그 수 작 이 . 부 들 아 을  
 따 는 글 발 을 을 라 가 , 영 영 앓 어 으 .  
 훌 훌 훌 . 그 러 기 에 노 름 이 래 미 는  
 그 기 있 각 말 예 은 호 " " " .  
 수 랑 봉 부 인 의 말 이 맞 습 4 가 . 노 름 이 관  
 상 보 수 라 면 농 가 가 시 랑 각 말 인  
 4 가 .

20X10

No.

부 인 그 중 의 수 는 랑 봉 은 각 술 이 랑  
 으 4 호 " " " .

20X10

No

서 칼 볼    그런 리 조    보 르 조    하 " " "  
 부    이    장 남 작    같 으 면    4 천<sup>✓</sup> 원    300 이 야  
           우 라 들    4 백<sup>✓</sup> 원    300 이 나 카 요.    만 원  
           이 <sup>나</sup> 하    2 만<sup>✓</sup> 원 이 면    몰 카 르,    그 사  
           람 은    돈 을    곳 이    없 어 서    그 만 이  
           카 는 데 . . . . .

20X10

No

서 칼 볼    그 전    함 말 입 나 라.    그 래 서    손 재 주  
           를    좀    샀 리 요    하 " " " .    (사 이)  
           그 전    그 령 그    에 - ,    부 인 제    드 령  
           창 이    있 는 데 . . . .    들 어    주 실 는 지 ?

20X10

No. 부 인 네. 칭이요? ( 상을 귀투리며  
 (생각하자). 20X10

사랑봄 귀 - 별 일이 하나오라 오는  
 드보일 님의 사랑방을 좀 빌려,  
 주심사는 말이예요. 그날은 각  
 우리점 구각부는 연회가 많아서  
 빈 곳이 없답니다. 달리 쓸 것  
 이 하나도 간친회 (懇親會) 를

No. 개최할 생각입니다. 20X10  
 부 인 ( 상을 쳐고 ) 네. 난 조 무는 ( 20X10

큰 일 일을 알았러나, 그런 일  
 같으면 마음대로 쓰세요.  
 사참봉 다 같이 감사합니까.  
 부인 그러면 몇 시부터 시작할까  
 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참봉 오후 네시부터 시작하고, 열  
 삼시까지 5.6명에게 나눠  
 부인 그럼, 대략 어떤 사람들이 오  
 나요?  
 사참봉 매일 만나는 사람들 뿐  
 아니니까.

No

20X10

No

20X10



No

20X10

저 성실하며, 또 따님을 천애  
 하는 한승리며. 그리고 옥매를  
 죽라 할라 사랑하는 조환의 그 뒤  
 에 몇 사람이나.

이래, 옥매 안에서 나오라 그 말  
 을 듣고 함봉을 쫓아보며  
 옥매의 마구채라, 함봉 나라는 거  
 수릿말로 칼하시네.

No

20X10

함봉의, 그러므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나 내 말이 틀리리 만났구나

20X10

20X10

옥 매 아이, 몰라요!  
 부 인 귀년 구뭉이를 썰랑거리고 다녔  
 래부터 알아보았네나카.  
 옥 매 아이, 마님르 함 알꽃머 - (부  
 크러은 두 안으르 퇴랑)  
 부 인 귀 " " .  
 수 함봉 갖왕 " " .  
 - 사 이 -  
 부 인 아, 함봉 일건에 나가 부탁한  
 일은 어찌 됐슴나카?

No

20X10

No

20X10

20X10

20X10

수감봉 (기다렸다는 뜻) 부인제사는 할  
 김작이 왔을 나 그러.  
 부인 어찌 <sup>한</sup>년 말씀이 예요?  
 수감봉 간친회에 정남작이 온다는 걸  
 몰라요? 내가 아무라 아씨라  
 랑을 해 드, 강아라가 본 일이  
 왔을 나 좋아하는 기색을 안 보  
 따요, 그러서 이번 간친회를 이  
 용해사 선을 보인간 말씀예요.  
 부인 사의 감봉도, 그러면 그렇라고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진짜 말씀 하시려고 사. 일이 그

렇다면 간혹 회비를 제가 대대

치요.

사함봉 그러시면 제가 미안해서.....

부인 아나. 우리 타수에 무슨 미안이

있수. 그런데 들으니까 정남각은

마우 호석가 (好石家) 라는데, 우

리 속자를 한번 보기만 하면

강장 탐벌 것 아니겠습니까?

사함봉 그렇구 말구요. 사리를 못 쓸

걸 나 라.

부 인 그 런 데 참 봉, 말 을 들 으 나 경 남

작 에 겐 부 인 이 있 라 ~~원~~ 레 그 게

사 실 있 나 까?

사 참 봉 원 천 만 예 드. 그 러 나 근 부 의 호

색 가 라 기 왕 은 부 인 이 들 셋 씩

관 계 한 열 은 있 리 드. 하 리 만 리

금 은 개 심 ( 改 心 ) 하 고 있 습 나 라

그 런 사 람 이 오 입 을 가 끄 색 한

다 고 ~~한~~ 무 스 흥 이 되 겠 습 나

카. 좌우간 그런 사람을 남편으  
 로 삼으면 가족부인이 되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구 또 마님  
 은 가족의 사의를 ~~볼~~<sup>라</sup>면 그런  
 명예스런 일이 없간 말이예요.  
 부인 가족사의를 보아사 양반이 라는  
 것보다 그 돈이 참나거든...  
 사할봉 허... 그 일이 성사만 되면  
 부인께 사느 부키양화를 누릴 것  
 임다. 예... 그런 무것을 준금

No

No

20X10

20X10

호호호,

부 의 그것 이 나 뜻 라 로 만 된 라 면, 내

어 저 함 봉 의 공 을 잊 겠 소,

사 함 봉 그것 은 라 동 감 이 고, 그 런 데 아

씨 의 의 향 ( 嚮 ) 을 더 보 았 습 니

까 ?

부 의 으 사 이 흥 각 차 녀 는 사 르 마 주

보 고 결 혼 을 ~~결 혼 을~~ 한 라 런 데

우 라 아 르 여 학 모 가 리 나 았 으 니

악 리 르 는 한 되 고, 시 간 을 두 고

No

No

20X10

20X10

사 조응 위 라 은 러 보겠 습 니 라 .  
 사 람 영 네 직 접 말 씀 하 는 지 주 를 습 니 라 .  
 러 리 만 그 앎 권 한 아 씨 가 시 령 어  
 한 지 앎 을 쓰 지 ? 정 남 밖 의 라 만  
 호 섣 한 남 라 나 방 랑 한 사 람 이 내 랑  
 잘 사 을 예 사 는 모 르 는 사 람 이  
 다했 는 라 외 . 그 기 라 밖 이 르 40 세 어  
 양 들 으 니 가 됐 으 니 . . . . .  
 부 의 글 < 위 오 , 영 특 변 아 나 라 정 남 밖 의  
 그 런 것 들 을 시 령 아 할 는 지 그 것 이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No

사 함 봉 그 령 기 만 된 다 면 야 공 갓 리 만 ...

무 느 공 은 누 가 있 습 나 까 ?

부 이 함 봉 드 알 고 있 리 만 , 우 리 길 직

객 ( 倉 容 ) 으 르 뒷 방 사 랑 에 있

는 사 랑 말 씀 이 예 요 .

사 함 봉 아 - 안 동 천 씨 ( 安 東 權 氏 ) 그 사

람 말 씀 나 까 . ?

부 이 령 리 , 그 사 랑 은 안 동 태 생 으 르

자 기 집 에 재 산 으 량 광 화 모 양

인 레 삼 님 전 사 을 예 공 부 권 리

No

No

왔어 공부도 못하고 돈만 벌진

해버린 나머지 남산공원의 서자

살아려는 것을 우리가 속아가

데려와서 학자금카리 대신 범

관양심소 (法官養成所) 를 금년에

졸업하고 학사 이름카리 얻어서

뭐 변호사 시험을 보거나, 라식

이 하는 일이라 말리리 못하고

그러므로 두었더니, 그 사람을 본

경향도 나 같고 만다 하는 것을

20X10

No

20X10

20X10

20X10

No

보면 스크 사랑하는 모양이요.

20X10

양호위환 (養虎為患) 이라 하여 내

함.....

사한봉 스나 그렸어요.

부인 이례는 별 수 있나요. 권중의을

볼모로 삼아서, 정남각과의 혼신

을 자절하면 그 자식을 내 집

에서 내 잘못을 바라거든. <sup>주</sup>죽<sup>것</sup> 내

가는 그 끝을 보면, 시집가기가

20X10

사랑어든 결국 내 말을 들을거요

No

사 함 봉 ( 무 료 을 귀 머 ) 그 함 공 은  
 수 드, 됐 습 나 라. 그 런 재 주 를  
 나 는 데 는 부 인 의 마 라 가 비 상 하  
 단 말 이 아 하 " " " . 그 란 토  
 유 일 간 회 회 준비 를 잘 부 탁 받  
 나 라. ( 일 이 사 머 ) 그 럼 이 만 실 려  
 하 겠 습 나 라. ( 공 상 으 르 회 강 )  
 - 사 이 -  
 부 인 그 래 르 앓 아 사 웃 을 금 금 이 <  
 심 각 하 구 앓 나.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숙자, 우편에서 즐거우 알권로 등참  
 숙자 어머니님 다녀 왔습나라.  
 부인 응, 다녀 왔나. 너에게 할 말이  
 좀 있었는래 마흔살 됐구나.  
 거기 좀 앉거라.  
 숙자 (의자에 앉으며) 어머니 귀에  
 제 할 말이 세세부?  
 부인 오-나.  
 숙자 무슨 말씀이 세부?  
 부인 너을 해 몇살이지?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숙 라 어머니님 그걸 왜 부르시죠. 어머니  
 분이 제 나이도 모르세요 할  
 일도 아나는데.  
 부 인 내년이면 스무살이 되겠군. 벌써  
 노년대가 다 됐구먼.  
 숙 라 그것도 걱정이세요?  
 부 인 딸을 가진 엄마가 왜 걱정이  
 되리 않겠나. 어디 짝강한 자리  
 에 결혼을 해주 할 텐데.....  
 숙 라 어머니님. 감각스레 왜 그러세요?

No

20X10

No

20X10

20X10

20X10

부 인 감 작 이 아 나 라. 난 너 가 라 귀  
 예 배 지 는 걸 보 나 주 야 걱 정 이  
 구 나.

속 각 그 려 기 만. 전 아 직 결 혼 사  
 라 요.

부 인 그 런 말 할 게 아 나 라. 귀 ... 오 들  
 중 은 흥 취 가 한 나 생 겠 는 데 말  
 이 야, 문 별 은 각 말 할 게 마 나

제 일 신 앙 의 출 증 하 고 돈 말 고  
 너 르 귀 공 의 부 의 이 되 기

No

No

20X10

20X10

것 봤고 . . . . . 그 라 만 뒤 라 면 나  
 도 만 들 에 게 준 광 받 고 노 경 르  
 려 안 라 지 보 난 수 있 으 나 말 이  
 다. 한 공 은 자 라 라 고 오 들 사  
 감 <sup>부</sup> ~~부~~ 이 와 사 주 르 라 가 금 방 갖  
 다. 그 사 람 이 란 나 르 갈 아 느  
 장 남 각 이 아, 네 마음 이 아 라 누  
 음 ?

속 라 네 ?! ( 놀 라 아 절 클 모 르 라 )  
 부 인 아 라 나 ? 그 사 람 은 귀 족 이 면 사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20X10

20X10

No

20X10

20X10  
20X10  
20X10

가. 시련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비극과

사실은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극과

부인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극과)

20X10

응답은 나와 안 되고  
슬픔과 아픔과  
비극과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극과

부끄럼은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극과

사실은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극과

No

20X10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극과

No

No 23

No

드 활익 드 있고, 품행도 단정하  
 여 사람들의 정성이 자라라간  
 말이야, 그라 어찌 ~~나?~~

20X10

숙자 . . . . .

부인 어 어찌나? 물론 공리음!

숙자 . . . . .

부인 어찌 말 좀 해봐라.

숙자 . . . . .

No

부인 (악간 화를 내라) 숙자야 ~~말 좀~~  
 시름든 말이 나 ~~말 좀~~ 해봐. ~~말 좀~~

20X10

No

입이 막혔나.

20X10

숙자 (고개를 들고) 어머니, 나이르

보드리, 그 사람의 인격을 보드

리, 하수로 한강의 양버마, 또한

부인 또한 어쩔만 말이냐

숙자 (고개를 숙이며) 자... 마음에

이미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 (감~~차~~기~~하~~화를 내고 각<sup>정면</sup>의를

탕탕치며) 무엇이 어라냐 어라냐!

20X10

No

마음에 이미 결정한 사람이 있

다고? ... 이년 새미에게 말  
 할라. 하이고 내 팔라야. 라피  
 길라 영화 볼라 했거야, 새미가  
 권하는 곳을 꼭 거절하고, 새미  
 고백했네!  
 수라 (말없이 흐느낀다)  
 부인 그리 말하는 네 마음속 느낌이  
 누구랑 걸 짐작하겠나. 정 나가  
 그러라면 권할산가 뭔가 그녀  
 를 오늘 랑랑 내뺐아 버리겠나

No

No

20X10

20X10

No

숙 자 ( 라 옥 놀 라 ) 아 마 나 그 건 나

20X10

무 감 리 양 습 나 라.

부 인 나무 귀 라 고 ?! 내 팔 라 의 신 세

를 말 리 는 그 런 내 의 을 나 집

의 들 습 랐 라. 내 간 나 잘못 이 라 !

숙 자 아 마 나, 권 학 사 에 게 무 수 잘못 이

있 습 나 라. 그 말 들 나무 양 습 합

나 라.

No

부 인 아 속 이 라 무 나, 오 들 감 감 나

20X10

잘 못 이 라. 나 는 들 습 랐 라.

20X10

20X10

No

수 라 아라 보, 정 라 는 맞 는 사 람 들 감

20X10

~~가 가~~ 아 령 계 나 보 는 나 가 아 라 나

부 이 그 러 면 강 산 부 과 결 혼 부 짝 는 부

수 라 (느껴우라)

부 이 (갈라 뜻) 아 수 라 아, 그 러 리 말

고 내 말 문 들 나 라 음, 권 한 수 가

문 그 리 문 은 는, 아 라 칸 부 짝 권 이

시 권 을 가 아 해, 권 한 수 와 정 남

각 을 비 교 해 보 아 라, 신 부 를 보

No

나 재 산 을 보 나 권 한 아 보 라 아

20X10

No

반박 이상이다. 거기라 귀족이라

나르 귀족부의 이 죄나, 나르 내

적생도 평생을 편하게 살수 있

은 나 오죽 좋으냐. 그대 처한 사

가 날 먹과 살리겠냐. 속라야

공 생각해 보라 응,

혹 가 (원망하듯) 나머진 돈이 그 령

게 중한 일 나 카. 난 죽었으면 죽

았나 정남각 같은 ~~사관~~ 내 것 천

만관을 구라 왜냐 나 수정을

No

20X10

20X10

그리고 들린 말씀이다.  
 무슨 뜻이 이라고 어찌 알! 겨년 ~~어~~리  
 에게 말을 툭툭 할드 쓴다. 어  
 잇 죽을 년, 갈은나. (재말이를  
 탕탕친다)  
 속라 (쓸어려 운다)  
 부인 천중곡을 나뉘어는 중은누 응?  
 속라 ... (다욱 운다)  
 부인 예이 죽을 년, 천하에 몸쓸 년  
 갈은나, 래미아 너리 되든 네

No

No

20X10

20X10



No

20X10

그물을 캐르만 휘젓는 말이냐. 오

나 네 마음대로 해라,

들어져 울고 있는 딸을 한번 흘

겨보고는 냉수를 리우고, 물속에서

잔리를 캐내 낚시를 하기 목에

대고

부인 (슬픈 어조로) 오-냐, 나가 할라

면 하신 수 있으. 나는 나만

만고 그곳 약속을 해버렸으니,

지함 ~~와수~~ 안된라 할수가 없구

No

20X10

20X10

20X10

No

나, 살아서 그런 감회를 강하게

인화를 못 느낄 바에야 차라리

죽고 말겠구나.

수강, 완전을 낼 의욕이나 <sup>행</sup>보고

말할 일이나 의욕이나 <sup>행</sup>할 수

않

수강 의욕이나 완성이요, 귀가 갈 못 했

수강, 의욕이나 -

No

부인 (일부러 할 의욕을 부러워하)

노아라, 나는 죽고 말겠구나. 나는

No

살고 판리가 안가,  
 숙가 어머니 참으세요, 어머니 시키신  
 래르 하겠습니라,  
 부인 (바르게 칼을 들고 딸의 손을  
 잡으려) 내 말을 듣겠갈 말이  
 리. 고맙라 고마워, 기특한 내  
 자식. 그러기에 모녀리 정국 (母女  
 之情局) 이 칸 겪을 수 없는거라,  
 말이야 암,

20X10

No

숙가 다시 읽으려 목을 돌아  
 슌

20X10

No

20X10

뜨거 운 라 .

그 모 습 을 보 고 , 냉 소 화 미 소

를 띄 우 고

부 의 일 이 이 령 개 만 된 라 면 야 나 르

크 소 라 낫 고 살 <sup>텐</sup> ~~화~~ 레 죽 긴 와

죽 어 , 역 사 <sup>부</sup> ~~화~~ <sup>화</sup> ~~화~~ 를 기 르 <sup>부</sup> ~~화~~ <sup>화</sup> ~~화~~ 이

있 간 말 이 아 .

사 가 ( 힘 갖 이 일 어 나 수 물 을 <sup>부</sup> ~~화~~ <sup>화</sup> ~~화~~ )

부 으 로 나 가 라 <sup>부</sup> ~~화~~ <sup>화</sup> ~~화~~ )

No

20X10

부 의 <sup>부</sup> ~~화~~ <sup>화</sup> ~~화~~ 아 낫 가 나 ? 날 르 <sup>부</sup> ~~화~~ <sup>화</sup> ~~화~~ 이

20X10

20X10

No

20X10

데, 써 숙자야 -

숙자 (돌아보이고 앉고) 바깥을 끌

외고 오겠어요. (슬슬히 무릎으로

나간자 (퇴장)

부의 (숙자의 귀모습을 바라보고 웃

다가) 흐 " " " . 귀게 아팠어

린애관 말아 흐 " " . 각이래

일은 자 됐자. 흐 " " .

- 사 이 -

No

20X10

이때, 끝이 앙루한 거시 (아련중록

라 ) 궁 항 에서 등 강 화 의 사 을 두  
 리 번 가 라 가 )  
 거 시 여 보 주 인 , 여 보 주 인 마 따 사  
 계 시 우 ?  
 부 의 그 뒤 기 오 ? ( 거 리 를 보 고 는 감  
 작 놀 랑 가 . 그 러 나 그 특 점 을  
 삼 켜 버 린 라 )  
 거 리 마 의 구 , 라 는 사 념 하 였 습 니 라 ,  
 가 ... 마 는 으 .  
 부 의 ( 시 리 미 를 재 고 , 냉 정 하 게 ) 두

No

20X10

No

20X10

20X10

20X10

No

글 찾으소? 아나, 누글 찾기에

20X10

여길 함부로 들어 왔소?

거지 아나, 부인 날 모르실<sup>부</sup>까요?

부인 대관절 이 짐에 누글 찾으소?

거지 강신을 좀 만나려 왔소.

부인 난 강신같은 사람 모르오, 짐을

칼뚫 찾은 것 같<sup>같</sup>하소.

거지 (화를 내며) 내가 짐을 칼뚫

찾았소? 뭐, 내가 강신을 몰라?

20X10

당신이 날 모른단 말인가!

20X10

20X10

No

부 인 아 나, 저 빌 아 먹 을 거 리 가, 함 부  
 로 지 절 대 는 가 아 - . 구 절 을 왓  
 으 면 돈 을 갈 칼 게 아 나 라.

가 리 응 ! 돈 일 으 려 온 거 리 취 금  
 이 아, 너 가 긴 경 고 모 르 는 말 아 -

부 인 아 나, 저 돈 이 미 려 나, 누 클 보  
 고 나 라 고 해 ! (하 을 항 해)  
 아 들 아, 아 들 아 -

No

에 - 각 면 사 각 날 등 각  
 하 만 (거 리 를 바 라 볼 라)



부 의 재수가 없으니 나라 별 일을 다  
 망했다. 저 늙은 것을 망할 것  
 이 내어라.  
 가 리 오 - 나, 네가 아주 도도해졌구나  
 이 년아, 나를 모른다고 이 말썽  
 나 음 -  
 하 남 ( 거 리 를 끌고 중앙 과 문간으로  
 나가라 ) 이 늙은 개 주럭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야간야, 나가  
 나가 -

No

20X10

No

20X10

No

가 리 (글러 나가며) 네가 날 거 리 라  
 고 <sup>꽃</sup>아 버 라. 이 녀 아 두 코 보 라  
 볼 가 만 두 쫓 았 을 것 이 라 -  
 ( 글러 사 퇴 강 )

20X10

부 인 하 환, 개 수가 없 으 나 카 별 게  
 다 찾 아 왔 어 지 칼 부 라 네 환,  
 이 래, 하 남 옷 마 먼 리 를 필 미 등  
 장 )

No

부 인 그 미 씬 남 내 <sup>꽃</sup>았 나?  
 하 남 그 남 아 주 미 환 습 리 라. 대 문 밖

20X10

20X10

20X10

No

예사 만년 옥을 파 부는 레 키  
 나전 승상 카 레라고 갔습 나 라.  
 부 신 후 - 그 래 같 했 라, 수 고 했 라.  
 바 음 위 그 들 이 학 사 왔 어 날 갖  
 거 든 했 라 고 꾸 주 아 버 려 라.  
 하 산 아 그 라 구 말 고 으, 으 같 어 으 기  
 만 하 면 내 가 가 반 주 질 상 들,  
 질 나 라 만 년.

20X10

No

부 신 응 그 래 (감 감 사 이) 자 신 에  
 들 어 가 서 으 때 좀 나<sup>2</sup>라 해 라.

20X10

No

부 산 네. (안으로 퇴장)

20X10

안에서 부대 등장하여 마포나 사  
의 끝 ~~끝~~(과)

부 마 마 남 부르셨습니까?

부 이 그래, 아까 숙라가 바람 쐬다고,  
부 부를 나갔는데 네 몸 왔어  
오나라.

부 마 어디로 갔습니까?

No

부 이 바람 쐬러 간다고 했어.

20X10

부 마 어디로요?

20X10

20X10

부 인 어 기 르 리 나 르 보 르 가,  
 옥 맥 어 기 간 클 르 보 르 는 사 람 들  
 마 클 가 요 ? 참 갑 갑 하 네.  
 부 인 지 년 이 또 말 대 꾸 나 !  
 옥 매 네 - . ( 쿵 앙 으 르 희 상 )  
 부 인 지 년 은 상 <sup>남</sup> ~~남~~ 꼭 꼭 말 대 꾸 아 . . .  
 으 늘 는 부 스 남 의 을 <sup>홍</sup> ~~홍~~ 리 아 의  
 속 상 화 - . ( 구 러 나 갑 시 후 계  
 획 의 상 획 갑 을 즐 기 마 ( 맛 맛 가 )  
 이 때 , 쉼 클 의 외 출 복 에 특 령 고 를

No

20X10

No

20X10

No

들고 우편에서 등장,  
 부인 (일어서 한가름 나가) 아나,  
 권쿠사! ...  
 권중의 마님, 삼년 동안이나 친 라식갈  
 이 야짜 주시고, 확보까지 태어  
 주신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  
 다.

20X10

No

부인 원, 별 말씀을, 그런데 짐을 들  
 고 내려라고 ... .. 응, 참, 아할  
 에 중시가 데리러 왔카리. 사랑

20X10

No

이 사랑의 만큼 만류는 못하겠  
 소란, 각종에 떠난라나 심심해서  
 너러나, 속라한 만나고 가리요.  
 관공의 네. 아씨네 아끼 남산공원에서  
 만났습나라만, 공산에 사환이 왔  
 나..... 하직도 못했습나라.....  
 그러면 여관에 짐을 풀고, 아씨  
 제는 대신 하직의 살 드러려오  
 겠습나라.  
 부 이 공씨제사 안응사 일부라 오셨라

20X10

20X10

No

4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부 공부 네, 자선 계사 공화에 계시면 사  
 마일 같이 자를 찾고 있잖아라.  
 부인 아 그 참 안됐습니라. 사정이 그  
 량라면 차간 가야겠습니라만...  
 귀찮으면 모를...  
 전부 공부 (포켓사 돈봉투를 제내어 부인  
 에 건넵마) 마님, 마님의 생김  
 이런 것으론 사 잘느라느 것이  
 귀찮습니라만 이제 삼천원인니라.

No

No

20X10

20X10

20X10



제 장 상 의 물 시 로 <sup>말</sup> 받 고 받 아  
 주 시 면 그 감 켜 주 니 라.  
 부 의 ( 갑 라 기 기 바 하 면 사 르 ) 아 나,  
 돈 은 무 슌 돈 이 모. 우리 들 의 강  
 의 를 돈 으 로 바 꿀 수 있 나 모.  
 그 건 도 루 행 어 시 죠.  
 권 공 식 아 나 마 남, 이 것 로 제 형 이 마  
 남 켜 드 리 는 것 입 니 라.  
 부 의 아 그 래 요. 그 럼 리 만 의 사 주 사  
 ( 돈 을 받 는 라 )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No

것 중 의 마 는, 발 아 주 시 4 그 많 습 4 라.

20X10

제 형 이 마 보 을 찾 아 뵈 고 인

삼 드 라 는 것 이 드 린 4 라 만, 모

들 행 한 르 나 라 가 아 할 사 경 으

로 모 질 못 했 습 4 라, 제 가 대

신 이 잘 을 잘 4 라. . . . . 그 린, 마

는 사 랑 위 제 심 시 부.

부 시 으 들 행 각 르 가 으? 그 한 양 됐 습

4 라.

20X10

No

이 러, 속 자 의 무 마 궁 앙 세 사 들 어

20X10

20X10

No	모	다	가	사	르	마	주	보	고	끌	리	듯	20X10					
	무	래	가	운	데	가	리	나	은	라	.							
	천	중	의	아	씨	그	중	산	신	세	많	이	졌	습	니	라	.	
	숙	과	아	니	,	이	짐	을	갖	고	어	려	할	작				
				강	이	세	우	?										
	천	중	의	아	카	공	원	에	시	보	습	바	와	갈	이			
				가	항	(	자	님	)	이	상	경	했	습	니	라	.	하
				바	리	가	중	환	에	계	신	감	니	라	.	그	래	
No	사	오	들	밤	관	르	나	려	가	기	르		20X10					
	했	습	니	라	.													

속 라 아 니 , 그 러 면 영 영 . . . ( 느 저 은 라 )  
 천 중 식 속 라 씨 , 떠 나 는 제 마 음 을 무 라  
 말 할 수 없 습 니 라 . ( 훈 라 말 르 )  
 삼 년 전 아 씨 의 우 례 가 아 니 었  
 라 면 귀 는 남 산 공 원 풀 을 속 의  
 백 글 이 되 어 . . . . . 오 늘 의 천 중 식 이  
 가 있 었 겠 습 니 라 . 아 씨 의 그 따  
 특 한 애 장 으 르 소 생 귀 여 학 소 관  
 학 의 가 꿀 반 아 금 의 환 향 ( 錦 衣 還  
 鄉 ) 가 리 귀 세 되 었 으 니 ( 속 라

No

No

20X10

20X10

20X10

에 게 (가 가 사 마 ) 그 의 사 를 어  
 의 말 를 사 라 하 겠 습 나 가.  
 속 라 그러 면, 사 을 인 라 시 안 으 ~~사~~ 으 9  
 권 중 국 가 친 나 병 세 를 봐 서 옛 만 라 면  
 이 반 변 호 사 시 할 때 는 보 겠 습 나  
 라.  
 속 라 꼭 보 시 리 으 네 — . (후 라 말 로)  
 만 약 못 보 신 라 면 라 는 귀 는 ...  
 이 래 부 의 '홍!' 라 고 사 으 를 들 으  
 간 라 ( 퇴 장 )

No

20X10

No

20X10

No

목 마 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세울 네, 상 오신다면 아씨 계서

는 .....

관공의 부마, 너저른 신세 앞이 젖구나.

부리 아씨 관 모서 응-

목 마 나라, 나에게 인사하리 말고 <sup>복</sup>오

세울 너-

관공의 오나, 인려받아, 그라고 너도 볼

삼히 관 갖가라 응, (숙자에게)

숙관식, 우리들의 할 얘기가 밤

20x10

20x10

을 세운들 끝나겠소. 의 한 의사

경님이 기라라고 있으냐 그만

가 봐버겠습니까. (대문 밖으로

나간다)

속라 말을 못하고 듣고 있다가

무슨 결심을 하고

속라 권주사!

천공사 (돌아사바) ?

속라 권주사,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라라겠습니까.

No

천공의 난 속카셀 및 고... 및 리 앵글 습

20X10

나 라.

서로 라가 서머

속 카 중의 씨 -

천공의 속카 씨 -

서로의 물 속으로 안고 안 격<sup>라</sup>라

구위를 갠 작 라고 말하 서 바라 만

보라가 머리를 속이 라.

- 고은리 막이 나 라 -

No

20X10



제 2 막

때 1925년 늦 가을

곳 서울 남산공원

나오는 사람들

윤석배 (尹錫培) 경찰 탐정 32세

방구일 (方奎一) " 30세

정남국 (鄭男爵) 45세

부장 (巡查) 42세

야경 ( ) 30세

이 손 필 (李三八 = 장부사) 52 세

의 의 (검은 복면 (覆面) 의 여인 ...)

이 명 중 (李明仲) 전갈 활위 (活位) 활위 (活位) 46 세

옥 매 (玉梅) 이 이상 화 관 (화관) 나 20 세

활 중 열 (韓東悅) 전갈 승지 (承知) 50 세

의 ~~환사 (換事)~~, ~~검사 (檢事)~~ > 습

사복 (私服) 형사 수인

제 / 광



그 한 번 더 영 악장 순사가 큰 큰  
 글머릿을 쓴 한 장을 어 읽다,  
 - 사 이 -  
 술이 일과 뒤 취한 정남각 좌측  
 의사 아슬랑 어슬랑 걸어 나온다.  
 장만부 ( 회중시계를 꺼내 보며 ) 어 -  
 벌사 새로 무시가 됐군. 오늘  
 밤은 술이 왜 이리만 깨는가  
 기왕 늦은 걸 어떡하냐. 잠이  
 가 봤자 기라라느 여편네가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No. \_\_\_\_\_

나. 사랑스런 자식이 ~~웃~~ 나 ..... 20X10

바람이 나 실컷 쉬고 가세요! 20X10

(~~부엌을 봤으며~~ 무흑으로 <sup>부엌</sup> 20X10

간과 - 퇴장)

무래는 야경의 코코는 소리 <sup>부</sup> 20X10

죽은 듯 귀요라라. - 산티 - 20X10

정남쪽의 별과 간 그 상의사 20X10

들리는 정남쪽의 양포의 <sup>관</sup> 20X10

라 낮게 들린다. "앗 - 이...이 계" 20X10

무엇이? 아 이... 사랑 아나... 20X10

No

경산작 목을 걸러 나오라 가

경산작 구 특 수 이 왜 하릴 거기 서 목을

막고 죽었 리. - 어 빛, 뭇 뭇 ...

으응 - (어디 풀 쏘아 보며) 그렇

리, 내가 함 응 게 르 여 길 잘

왔 리, ... 그 래 이 래 르 리 가 ...

( 걸 어 나 오 라 약 결 을 말 거 라 고

음 칫 날 라 고 말 아 나 듯 파 른

안 으 르 나 간 과 ( 회 광 )

20X10

No

이 경 ( 잠 이 갠 듯 해 품 을 크게 란 고 )

20X10

20X10

20X10

No

아 같 잣 다. 벌써 겨울이 오나

날씨가 한데... 아개 사람이 저

라르 가는 것 같은데 왜 안 노

리? 벌써 갔나? ... (일어나서)

라 마리 막으려 공원 순행 (巡行)

이나 해야지 (부족한 것으로)

강 - - 사이 -

그 안에 서 들리는 <sup>악정의</sup> 소리

악 소 경 라 나뭇가리를 줌 천바렸으면 좋겠

눈데, 원 이래서야 통행을 할 수

20X10

20X10

있나. 아 - 이게 뭐야? 나뭇가  
 진 풀 알았더니 무엇이 걸렸구나  
 아!! 이 이 제 사 사람. - (무  
 대 큰 쥐어 나와) 사람의 목을  
 매어 죽였구나. <sup>아</sup>아 (손짓을 하며)  
 이렇게 두이 쪽 나오오, 커르  
 쪽 바쁘고, 그 두... 아 이 무서  
 그러 바쁘라 본사 (本署) 에 알려  
 야리 (바쁘게 좌측으로 피장)  
 - 기 사 이 -

No

No

20X10

20X10



초상관이 비취는 용침한 공간 )  
 밀라사 라동화 소라 들라 온라,  
 야경의 안나르 수사부장라 형사  
 2.3 명이 좌측에서 등장하여 손권  
 등을 비추고 우측으로 들어간다.  
 - 사 이 -  
 경찰 탐정 (探偵) 방수일이 좌  
 측에서 등장하여 걸 <sup>어</sup> <sup>가</sup> <sup>리</sup> <sup>가</sup> 현장에서  
 나오던 부장 일행과 마주친다.  
 방수일 빌사 검시는 끝났습니까?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No. 부 장 응, 마 렸 소. 그 런 데 응 승 사 는 아

크 인 았 소 ?

방 주 일 모 르 겠 습 나 라.

부 장 좌 우 간 시 체 를 한 번 검 시 해 보

게. 가 네 들 은 판 장 이 권 문 이 나 라

혹 분 는 별 상 일 이 았 는 가 말 아

방 주 일 무 는 소 리 문 은 았 았 습 나 라 ?

부 장 별 것 은 았 았 어. 혹 각 제 ( 鼎 角 製 )

도 각 이 한 개 았 았 는 데 김 석 봉

( 金石奉 ) 이 라 사 거 저 았 았 어.

No

No

20X10

20X10

10X10

20X10

No

방구일 김석봉 이라고요?

20X10

부 상 응, 돌석 (石) 과 받들<sup>봉</sup>(奉) 가 아

방구일 전등을 좀 빌려 주시지요.

부 상 응 그 래 (손잡이를 준다)

방구일 ( 전등을 받아 불을 비추며 현  
장으로 들어 간다 ) - 퇴장 -

모두들 그를 기라라고 했다.

방구일 ( 되돌아 나와 ) 나이는 50세

No

이상이고, 다 떨어진 양복에 피

20X10

골 (皮骨) 만 남은 것을 보아서

20X10

20X10

No

극심한 기근 (飢饉) 을 못 견디

죽은 듯 할 나 라.

부 상 경찰의 말도 그 랐으 나 방수사의

감정과 다르기 랐으 나 관할 살인에

틀림 없겠소, 우 리는 이만 가겠

으 나, 방수사는 근처를 한번 더

수사해 보시오. 그 응수사에 의

하면 공을 떼려 (일행 간첩으로

퇴장할라)

No

방수일 (베치에 샷사 담배를 리우 따라

20X10

20X10

No

공공이 생각하기 스프링코트 밑

20X10

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사방

을 살라고 ) 이것은 분명 핏자

국인래 금시 물은 것 갈린 흙

과 ... 하루 오래된 것 갈은래

그 이상이라. (그러라가 포켓에

사 종이 쪽지를 꺼내 뒤 보며 )

그할 절통칸 결 ... 틀림 없는

런지 쪽진래 ... 이것만으론 그

20X10

사면을 알수 있나? 이 보자기

라든지, 이 권리라든지 . . . . 그러  
 기 함을 못 함은 <sup>본</sup> 권의  
 사정이 아니라 아무라도 심각한  
 사면이 있는 것 같은데 . . . .  
 이때, 무대 뒤에서 들리는 소리,  
 소리 자체가 여권 검시관의 눈을 속  
 이고, 나무 사이에서 나는 작은 보라  
 기를 주어 놓아 주 - .  
 방구멍 (놀라 들었던 것을 놓아 버리고  
 본능적으로 권총을 뽑아 겨누며)

No

No

20X10

20X10

~~방구 앞~~ 누구야 ?!  
 이 때, 유석배 서서히 등장하며  
 유석배 왜 ~ ~ ~, 그러 놀랄 것 없네.  
 방구 앞 아 유순산가, 난 또 누구라고  
 아카 부장님 르 라네 말을 하고  
 갔네. 그런데, 라네 언제 왔나?  
 나는 라네 모르네 큰 사건을  
 잡아 갈라를 받으러 왔는데, 라  
 네가 먼저 알았으니 다 들렸네  
 유석배 방을 사, 라네는 그 보라기 를

No

20X10

No

20X10

네 령 지 보는 가 ? 그 죽은 사람  
 의 양복 자고 리 살 각 후 가 끝  
 려 저 잊었 으 나 물 속 에 서 나온  
 제 들 림 잊 는 데 보 예 산 물 건 은  
 잊었 드 가 ?  
 밤 쿠 일 아무 것 도 없었 어. 그 러 나 무 수  
 물 건 을 사 서 으 래 등 모 양 이 하  
 보 의 주 림 <sup>끝</sup> 의 역 만 위 남 았 으 나  
 각 주 피 본 것 이 아 나 아. 그 리  
 고 또 이 상 한 것 은 <sup>플리</sup> 보 예 으 래

No

No

20X10

20X10



No

된 핏라국이 남하 왔을 때 말야  
 용석배 ~~보~~해가 풀려 있을 때 말더리? 그  
 렘 우리가 오자기 전에 누가 가  
 려 간 모양이 구려, 우리가 한 말  
 들었네.

방구일 그 렘, 누가 다녀 갔을래?  
 용석구 이 사건에 관련된 자이겠지.  
 방구일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브자기의

No

매듭이 풀린 자리가 곳곳한 것  
 을 봐서 도둑 감한 래 사필이야

20X10

20X10

No

유석배 (포켓트세서 종이 조각을 취하며)  
 며) 방수수 가네르 힌 보자기  
 를 얻어 아각이지막, 나르 삼광  
 해 증거물을 얻었관 말야.

20X10

방구일 무슨 증거물을?

유석배 가네르 비밀르 취나 나르 비밀  
 을 증지켜야겠나.

방구일 흥! 알고 숙는건 증명지 막, 내가

No

검사 (檢規) 를 두 번이나 했느  
 데 증거를 얻어 흥!

20X10

응석배 그것은 이 을 판정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야. 현장 감정의 순수  
 를 봐서 제 3 검사가 방쿠일  
 판정이었 라는 사실을 몰라?  
 방쿠일 그러면 나르 말았라. 자네가 얼  
 았 라는 증거물이란 찍어진 권리  
 쪽이 리 한 . . . 어때?  
 응석배 아나?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  
 았나?  
 방쿠일 내가 그 한쪽을 갖고 있어

No

20X10

No

20X10

20X10

20X10

No

20X10

두 사람 서로 쫓겨 온후를 맞추어

어 보고

방구멍 그 이상만 걸, 이 위에 붙었더니

구조물은 어디 됐어.

음식배 그러기에 .....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쫓겨 갔는지 말해.

방구멍 좌우간 한번 맞춰 보세.

음식배 (구조물을 맞추어 떠엄떠엄 하는

다. <영상 재판 기록> - 註 -

No

20X10

<sup>草</sup> 庵獨房에서 無罪인 少女

		할	時	에	掛	掘	는	新	製	.	.	.
No		房	中	에	떠	르	진	4	淋	漓	는	鮮
		我	의	手	를	收	拾	한	이	房	中	에
		이	于	今	十	九	前	에	發	生	한	惡
		到	今	思	之	가	가	에	復	悔	莫	及
		其	證	據	品	은	血	痕	浸	漬	한	이
		이	고	名	字	를	刺	綿	한	袈	裟	를
		한	毒	婦	가	掩	然	한	가	世	上	에
No		그	되	我	亦	不	幸	한	이	그	行	為
		할	이	는	不	能	呈	雪	憤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儼

以遺書一度之 以

幸甚 痛書

음 - . 이 령 개 의 고 보 나 위 에

불은 것 을 어 려운 가 가 급히 가

려 가 라 라 쫓겨 간 것 의 르 군 .

방구의 참 질풍 랑 구려 . 그 위의 것 만

있었 으면 사건 전부를 알 수 있

겠는데 이것 만 갖고 서야 아 래 알

수 있겠 나

No

No

20X10

20X10

을 식 바 이 것 만 이 라 그 대 략 은 권 작 할  
 주 었 어. 죽 은 사 람 이 무 는 큰  
 원 한 을 품 으 죽 었 라 는 걸 알 투  
 았 고, 그 러 고 그 증 가 품 으 르 는  
 가 사 를 라 했 고, 또 19 년 전 에  
 발 생 한 악 ( 惡 ) 이 뭣 이 라 했 는  
 나 그 원 인 이 작 으 리 되 고 아  
 주 길 은 듯 상 각 리 질 았 으 나,  
 방 주 일 가 사 람 절 타 증 들 이 임 는 것  
 약 야, 그 러 고 이 보 라 기 에 싹 건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No

20X10

것이 그 가사 아나 보겠나.

웃석배 자네 추측이 틀림 없네,

방쿠일 그 함, 원통하군. 응순사 직책상

이래로 걸너 줄 수가 있겠나. 우

라 힘을 함해사 이 사건을 해

질해 보질 삼겠나?

웃석배 그라 세.

틀 좌측으로 퇴장, 베치 두개만

수업이 한은 두말 걸어러 나리라.

남은 평 변 공간. ~~수업이~~ 용암 (澆

No

20X10

뭍) <재 / 장 끝>



제 2 장

제 1 장에서 3월 27, 같은 무대의  
같은 밤.

술이 얼거려 취한 장남과 무는  
주름은 일의 잇는 듯 휘휘거리면서 좌  
측에서 등장

장남과 흐르흐 이게 숙차 려리거든, 뭐  
오늘 밤 만나라고 하 " " " "

No

No

20X10

20X10

No

20X10

음 - 회관 다. 오늘 저녁 간판 회

내서의 수라는 라옥 ~~의~~ 뻗리. 그

예백 숙자가 오늘 밤 아무로

않는 공원에 서 날 만나라고 하

하하 - , 그걸 보면 걸으르느 이

신학 하프 속으론 좋은 보양이

아. 헛치 " " . 암 나가 누운데.

그래 더 으숙한 곳에서 만나

우리 흥 , . . (우츠크으르 퇴강)

20X10

No

- 사 이 -

No

공원 지기 이 산 팔 목을 ~~함~~ ~~말~~ ~~의~~ ~~과~~

죽에서 등장

이 산 팔 하이고 이 눈과 벼룩, 여섯들이

옷에 붙어서 예카리 팔마 왔군

(저고리를 벗어 ~~판~~ ~~자~~) 방이란

게 벼룩 팔이라 ~~한~~ ~~만~~ ~~한~~ ~~만~~

밤상의 줄 알고 마구 달려들어

먹어치우나 . . . 도무지 잠을 잠수

있어야지, 이것 ~~참~~ . (저고리에

붙은 벼룩을 잡아 죽이려가 옷

20X10

No

20X10

20X10

20X10

No

을 팔 팔 팔 어 서 입고 번 리 에

숫 숫 라 가 일 어 서 바 리 속 에 손 을

뽕 의 ~~팔 팔~~ 라 가 , 어 이 고 완 수 들 다

바 리 록 ( 주 의 를 살 리 고 ) 바 리 를

뽕 의 번 리 는 두 들 기 마 ) 죽 어 리

이 들 들 라 죽 어 리 ... 내 같 은 팔

랑 갱 이 만 ~~팔 팔~~ 리 말 고 있 는 들 들

살 고 기 나 ~~팔 팔~~ 어 리 . . . . . 뭐 ? 약 때

No

무 에 못 간 라 고 . . . . . 약 살 른

르 없 는 내 신 세 나 ~~팔 팔~~ 마 찬 가 리 구

20X10

20X10

No.

20X10

나. (바지를 입으며) 오나, 빈

대 불을 꺼로 왔는데 물통이

되나 막각각 ~~떨어~~어라. 아! 거기

는 ~~떨어~~떨어 으면 안된다. 아아 - 그만

해라. 공이라고 너무 하잖아...

달은 왜 더 ~~떨어~~떨어떨떨하냐. 엇 후위

날씨가 추워지구나. 엇히! (기침

을 하고) 그러, 하는 수없나.

또 버릇과 승강이를 해라 밤에

No.

20X10

공공아. (돌아사러 할라)

No

9. 의 ( 무라 무후 안 에 서 ) 여 보 세 호

이 삼 팔 ( 의 심 하 며 돌 아 선 자 ) ? . . . .

9. 의 ( 소 리 ) 여 보 세 호 .

이 삼 팔 아 나 밤 중 의 그 누구 호 ?

9. 의 . . . . .

이 삼 팔 그 이 상 하 라 ? 이 길 은 밤 세 누

가 불 라 ? 그 것 은 여 라 가 ? 산

모 라 면 사 람 들 이 돌 아 간 리 가

호 켜 세 . 누 구 호 ? . . . ( 그 쪽 을 리

겨 보 라 )

20X10

20X10

No

20X10

이래 소복 (素服) 에 검은 복면 (覆面) 의 ? 어 뭉뭉하게 걸어나  
온다,

이 삼팔 앓!! 이. 이... (검에 질러  
몸을 썰때 죽어있는다)

? 어 사람을 잘 못 보았군. (되돌  
가버린대)

이 삼팔 (적우 정신을 해라고 일어나)

No

20X10

오이구 그게 뭐야? 분명 사람  
은 사람의 것, 눈도 그도 앓는다

No

20X10

검방이 ..... 마리가 있는 여가?

아아구 무서워라. (위라 띠를 굴

라매고) 가만 있라 그라 (위라

를 꾸부라고 살금살금? 여의

뒤를 쫓듯 들어간라) -사이-

(마리를 가듯거리며 도루 나라)

그할 이상한라. 그-기카진 분명

보였는데 ..... 바위 곁에서 사라져

바래간 말야. 암반 훑아르 종적

이 났아 전야. 응 그라 그래 귀

No

20X10



No

신이 가 보자, 아잇 무시워 - (사

방을 두라 번거란 자)

이래 그 한 쪽은 사 불리든 "앗!!

사람 살려 - 속 - 으음 - 사 사

람 살려 - "

이 삼 팔 또 뭐야?

이래, 정남쪽 피가 큰 큰 두 가슴을,

한 손으 큰 두르고, 다른 한 손에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살을 거라 버

나와 쓸어진 자.

20X10

20X10

25

No

이 삼 팔 앓. 이 전 남 관 계 왜 이 라 지 ?

정 삼 팔 ( 리 문 은 손 을 바 각 예 잘 고 겨

우 하 라 를 리 고. 마 라 카 락 쫓

팔 을 걸 고 ) 이 년 - 년 !! ... .. 이 년

— ( 적 쓸 어 자 팔 을 뺄 는 다 )

이 삼 팔 ( 살 금 살 금 결 어 가 <sup>드 라</sup> ~~들~~ 어 라 보

고 ) 아 죽 았 구 나. 아 이 그 사 람

이 죽 았 다. ( 일 어 서 달 아 나 마,

사 람 이 죽 았 다 —. ( 좌 측 으 르 회 감 )

20X10

20X10

No

— 사 이 —

No

무대는 한층 밝아지면, 밤잠을 깨

사소라가 들린다. (음전 (轉))

제 3 장

제 2 장에서 5.6을 뒤, 벤치 한 개

만 놓인 방안 어느 한 곳.

방죽을 우측 안쪽에서 나와 정남

각 4 스러져 죽은 자라 큰 살리다

가 벤치에 앉아서 무엇을 곰곰이

No

20X10

20X10

No

생각해 오다가  
 방긋 웃는 얼굴. 이 풍경 방긋 웃는  
 김씨 부인에게 수줍은 말이 리 내  
 함, ... 하리 만 이번 만은 안 속  
 아. 속자 처럼 삼전환 주수가 사  
 람을 죽이러 가 말로 안 돼. 정  
 파쿠이 쥐고 죽은 그 머리카락  
 이 속자씨 것이 라고? 허례, 결

No

발염업 (結髮營業) 이 옥등 할 만  
 도 속자씨 머리카락 말라고 ...

20X10

20X10

No

20X10

그 <sup>한</sup> <sup>말</sup> <sup>이</sup> 우릴 속이고 속자 실

범의 을 <sup>말</sup> 들 <sup>라</sup> 가 <sup>았</sup> 는 <sup>제</sup> . . . . .

이 때, <sup>우</sup> <sup>석</sup> <sup>바</sup> <sup>라</sup> <sup>후</sup> <sup>의</sup> <sup>사</sup> <sup>등</sup> <sup>강</sup> <sup>라</sup> <sup>면</sup>

<sup>우</sup> <sup>석</sup> <sup>바</sup> <sup>가</sup> <sup>라</sup> <sup>면</sup>, <sup>우</sup> <sup>자</sup> <sup>의</sup> <sup>말</sup> <sup>이</sup> <sup>가</sup> <sup>어</sup>

마 나 <sup>것</sup> <sup>이</sup> <sup>관</sup> <sup>말</sup> <sup>인</sup> <sup>가</sup> !

<sup>방</sup> <sup>구</sup> <sup>일</sup> <sup>원</sup> <sup>순</sup> <sup>가</sup>, <sup>자</sup> <sup>네</sup> <sup>는</sup> <sup>들</sup> <sup>사</sup> <sup>람</sup> <sup>을</sup> <sup>놀</sup> <sup>라</sup>

<sup>재</sup> <sup>만</sup> <sup>한</sup> <sup>나</sup>.

<sup>우</sup> <sup>석</sup> <sup>바</sup> <sup>수</sup> <sup>자</sup> <sup>의</sup> <sup>정</sup> <sup>남</sup> <sup>작</sup> <sup>살</sup> <sup>려</sup> <sup>등</sup> <sup>기</sup> <sup>가</sup> <sup>그</sup>

나 <sup>마</sup> <sup>나</sup> <sup>에</sup> <sup>게</sup> <sup>있</sup> <sup>다</sup> <sup>는</sup> <sup>이</sup> <sup>유</sup> <sup>를</sup> <sup>준</sup>

<sup>자</sup> <sup>네</sup> <sup>위</sup> <sup>말</sup> <sup>하</sup> <sup>보</sup> <sup>게</sup>.

20X10

20X10

No

20X10

No

방죽을 그것이 너무 강황해서 사에 가

20X10

사 조응위 말하리.

을석배 여기가 러 조응위 리 앵느부.

방죽을 그런 말 함되. 우선 씩게 말하

면 그 김씨 부인이 숙라실 그

호석가 정만각에게 시집을 보내

려 했대. 생각해 봐. 숙라씨 같

은 호조관 처녀가 그런 방랑사

에게 시집을 갈라고 했겠나?

20X10

No

을석배 사부. 그랬어?

20X10

20X10

방쿠일 그뿐 아니라 속자씨에게 찬공석

20X10

이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응석배 그랬어?

방쿠일 그러나 속자씨 그것을 막 거절

했지, 그러나 자 부인은 남작에게

시집까지 읽으면 항의해서 죽어

버리겠다고 말을 못이 대고서

죽는다고 야박을 부렸대.

응석배 그래?

20X10

방쿠일 그러나 나무라 <sup>✓</sup>신라라르 속자씨

20X10

20X10

No

20X10

같이 신상 학원 처녀가 죽는다

살든 내물라초 했겠나.

을석바 그랬어... 아나 이 사랑아 결혼

을 팔래 보게.

방구일 숙라신 결혼 자기 한몸 희생을

각오하라 그 결혼을 승낙하고

아나나 자살 망투했잖나.

을석바 음-

No

20X10

방구일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

고 부실은 죽었으면 죽었리 짐



No

남쪽이건 시집가리 <sup>아름</sup>겻각 거야

그렇지 만 분산 을 들어 내면 어머

나가 야 각 이 나 , 이 러 리 르 주 러 리

르 못 하 는 러 리 예 사 한 가 리 22

를 생각 해 번 것 같 아 .

웃 으 배 외 를 ?

방 주 은 정 안 각 살 해 .

웃 으 배 그 말 나 리 사 들 은 누 ?

방 주 은 기 음 가 리 너 가 조 사 한 결 과 야 ,

웃 으 배 사 실 은 그 <sup>를</sup> 들 듯 한 나 , <sup>나</sup> 후 나 결 해

20X10

20X10

No

는 그렇게 단수 리 않네.

20X10

방구일 그러면, 가네 속라 씨가 법인 리  
길 부인 하나?

웃소박 강연은 아리<sup>ㄴ</sup> 못하네 강좌는 그럴  
능리도 모르리.

방구일 확실히 증거를 갖고 드?

웃소박 그것도 말한 말이 있을거야.

방구일 나는 그대 말을 믿을 못하겠네.

No

웃소박 서로 전래가 다르니 할수있나.

20X10

방구일 그렇게 말하잖아 가네 심중을 말

No

겠네. 무슨 사 진법을 알지 두고  
 서 공사 (公私) 를 혼동하지 말  
 게나.

20X10

무슨 바 아나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을  
 조심하게.

방 치 일 가 년 컷 중 식 과 친구 라고 어 이 했  
 는 구 필 르 사 친구의 내의 들 보  
 호 하 라 는 것 아 나 ?

No

무슨 바 말이 심한걸, 증거만 확실하지 못  
 아. 어쩔 수 없잖나.

20X10

No

방극을 아나 이 사람 정신 있나. 피라  
 자가 사력 ( 勢力 ) 으로 잡아 뺏  
 머리카락의 주인을 알기에 두근사  
 자네는 그래 큰 증거를 찾아?  
 우선 바 그것 이 자네 편견이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말고, 그 머리카  
 락이 어떻게 정남각 손에 쥐  
 어졌나, 또 사람을 죽일만큼 악  
 행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죽인  
 사람나 손에 남기고 가? 또

20X10

20X10

No

그때쯤 머리가 한거번이 뻐졌라

면 그 자국이 있어야 할것 아

냐, 라넌 머리카락 주인만 할

았리 뻐진 머리카락 흔적을 조사했

나? 나는 구기카리 조사했지

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 그러

나 관련하기엔 조사과정에서

남아있는 말이야.

No

방카일 그것은 라넌의 친구/애인 보를책

이야. 아랫도리 상속할 체르하고

20X10

20X10

No

말가야.

20X10

용석배 그것의 편백이야.

방구일 편백이라든 구름아, 나는 강원도

체프할테야.

용석배 그것은 재네 재누리,

방구일 그편 끝까지 체프할<sup>하</sup>겠단 말이리?

용석배 사경에 따라가선 그편느리든 모르리.

방구일 재네 정할관나 본색을 잊지말게.

No

용석배 흥고 그알네.

20X10

방구일 화남 ~~기름~~ 기름으로 귀족으로 리강

음식배 잠깐 생각해가 빠르게 좌

측으로 퇴장한다. -사미- (溶晴)

제 4 장

제 3 장에서 일주일 뒤. 석양 (夕陽)

에 붙든 남산공원, 벤치로 앉는 한

적한 어느 한 곳. 조할위 명종과

이럴라 닥 한녀 옥따가 무늬에서 <

걸어 나온다.

No

No

20X10

20X10

No

꼭 매 무슨 말씀이 어으, 내리?

조명중 왜 그리 급하냐. 우리 노래간만

에 만났는데 천천히 내기 하라

구나.

꼭 매 심부름 가는 사람을 잡고서 어

길 천천히 해 드? 그리 무슨

말씀이 세으?

조명중 늘 보나 반가워서 활말을 웃

었구나 하 " " .

No

꼭 매 그럼, 나 갈래요. 활말은 웃으면

20X10

20X10



				사	이	리	로		데	리	고		왔	서	은	?			
주	명	중		하		상	미	로		무	가		그	라		금	해	45	
				근		말	할	게											
속		대		(	못	이	기	는		것	)		뜻	어	면		만	남	
				네	게		훈	나	으										
주	명	중		고		네	집		아	씨	가		사	각	중		김	백	
				각	집		간	리	가		일	주	일		원	라	원	제	
				와		아	각	가	리		돌	아	오	길		살	리	?	
				내		들	너	4		방	순	수	가		채	도	라	리	
				오	러		날		우	순	수	가		데	리	고		그	리

			가	가	크			리	신	이	것	과	는	레			그	레	
			할	말	이	나	어												
속	매		사	나	나	리		그	편		흥	빠	진				이	기	
			하	려	고		날		레	리	고		왔	어	은			함	
			나	는		다	른		말	이	나		하	실		를		말	
			왔	는	레		...												
조	망	중		다	른		말	이	나	어									
속	매		함		감	작	도		왔	어		그	편		레	가		말	
			할	까	어														
조	망	중		은		그	편												

속	때	저	...	저	...	사	이	부	끄	러	와,				
조	명	중	무	스	말	인	네	그	라	꿈	을	들	의	어	?
속	때	아	이	함	!	내	마	음	이	어	떻	나	그		
				런	말	이	나	물	을	즐	알	았	려	나	.
조	명	중	네	말	을	무	고	나	어	나	라	서	응	!	
속	때	사	이	함	,	난	갈	래	은						
조	명	중	너	말	이	란	날	사	랑	하	고	네	가		
				<del>물</del>	<del>을</del>	서	내	말	은	네	가	아	는	러	인
				레	사	심	스	레	물	어	서	말	해	그	런
				내	사	랑	내	사	랑	사	랑	가	는	때	

				르	차	기	르	하	고	,	하	차	문	건	말
				이	나			대	감	래		응	,		
부		매		예	.	하	차	말	씀		모	두	사	실	이
															여
				하	무	리		순	사		천	리	가	충	아
															르
				작	집	은		함	부	르		못	들	어	가
															는
				이	래	요	.								것
조	명	중		그	런	,		정	남	작	이		네	택	하
															신
				라	자	각	을		천	준		취	고		주
															웠
															라
				것	르			참	말		이	나	?		
속		매		네		그	런	자		할	라	라	.		

조	망	금	그	길	누	가	날	찾	아	!						
우	대	그	여	우	갈	은	목	등	활	만	이	그	랫			
				바	은											
조	망	금	목	등	활	마	나	라	나	!						
우	대	우	리	아	씨	머	리	를	프	말	아	보	아			
				구	찾	간	만	플	하	이	나	의	는	그	랫	
				우	나	가	신	장	이	우	라	아	씨	의	게	
				시	씨	로	함	이	리	어	중	장	로	만	이	
				활	찾	은	...	경	활	사	의	사	금	라	는	상
				금	이	박	사	이	활	찾	아	그	만	그	랫	

				다	우	.	에	있		그	년	의	할	망	구				
주	명	중		그	러	나		정	남	작	을		죽	의	사	람	이		
				네	집		아	씨	임	이		틀	림		있	구	나		
우	대			아	나		무	라	고	요	!		우	리	아	씨	같은		
				마	음		학	행		이	차		사	람	을		죽	여	은
주	명	중		그	렇	지	만		바	것	한		증	거	가		있	고	,
				또			부	인	제	사		정	남	작	에	제	안	가	
				면			죽	은	라	고		기	림		했	라	나		술
				가			<del>정남</del>	<del>작</del>	<del>을</del>		죽	이	려		했	라	고		무
				두	가			그	래	.		그	러	고		그	것	이	
																			범
																			를


				람	이		사	물	르			부	담	나	라	은			
조	명	중		그	리		누	구	관			말	이	나	?				
목		대		안	동		것	즉	사	라	은		그	이	가		대	구	
				감	양	의	사		제	일		유	명	한		관	장		김
				응	록		(	金	憲	錄	)	이	라	는		사	람	을	제
				라	고		상	경	한	라	는		전	보	가		왔	어	은
				그			사	람	은		대	구	서		뿐		의	나	리
				조	선	의	서	로		제	일		유	명	한		관	장	이
				라	고		그	라	은										
조	명	중		그			사	람	이		유	명	관		관	장	의	관	길



				알고		있	리	만		△		사	실	을		누	가																										
				견		했		는		가		?																															
욕		때				그		사		람		을		아		는		것		뿐		이		라		고		은															
조		명		중				가		만		있		라		-		우		를		가		알		겠		라		,		그		욕									
								순		살		나		가				뭣		있		구		만		,		그		랑		리		만									
								욕		때	,		실		수			천		중		익		이		가		일		등			칼										
								정		을				레		라		고				와		르				숙		살			죄		있		는						
								사		람		으		르								만		들		진				마		라		위		,		숙		자			
								훈		송		치		를								준		비		나				카		라		지			했		"		"		。
욕		때						사		나		?										나		리		는				우		리					아		씨		가		사

				형	되	를		바	라	는		말	이	오	!!									
				조	영	중		중	가	가		충	분	해	서		어	쥔		누		어	라	
								그	말	이	지													
				으		때		그	쥔		리	가	반	무	함	나	대		은					
				조	영	중		무	슨		중	지	르	?	<sup>(자)</sup>	아	까	르		말	했	리	만	
				으		때		우	리		아	씨	쥔	쥔	학	한		씨	가		사	람		
								을		죽	었	라	면		귀	-	기		우	는		까	라	
								쥔	가		을	라	가	르		못	을		지	예	은			
				조	영	중		무	슨		정	신	나	간		소	리	야		그	쥔		이	
								우	르	쥔		무	쥔	리	고		우	쥔		쥔		쥔	어	

				일	글	은		보	살	이	나			마	음	은		갈	날	이			
				라		말	은		불	경	애	르		있	어	,		남	녀	없			
				이		크	게		나	뻘		짓	을		하	는		사	람				
				들	은		남	이		보	기	의		착	한		사	람	이				
				말	고	,		또		원	래		절	대	의	이	(	絶	色	美			
				스	)	이		살	기	(	殺	處	)	가		남	과	함	이				
				한	말	이		아	나	의													
				우		대		당	신	은		우	라		아	씨	를		기	어	이	죄	
						의	을		망	드	부	라	은	,	내	한		기	가		막	혀	
				조	망	중		지	부	규		상	황	은	로	선		그	릴	수		밖	에

부	마	(	발	각	화	를	내	며	)	생	임	때	카	키
			나	를	그	런	사	람	으	르	와	봤	는	게
			기	하	보	나	아	쿠	나	발	사	람	이	네
			는	중	심	뜻	이	남	의	관	대	로		따
			다	나	는	당	신	이	꼭	살	어	졌	소	!
			(	돌	아	보	리	르	음	고	좌	측	으	르
			가	버	려	라	(	희	망	)				
			조	명	중	자	...	자	망	할	년	,	은	망
			함	오	를	큰	봉	뾰	이	구	,	...	하	—
			이	래	,	참	을	리	한	동	일	,	우	측
													안	쪽

				천	천	히		걸	어	나	와		그	의		등		뒤	에
				사															
한	중	원		그	것		라	네		잘	못	이	야.		속	하	가		반
				이	라	건		라	네	의		도	해	야.					
조	명	주		(	돌	아	(	따	)		아	나.		한	승	리		영	감.
				여	기		어	민		일	이	오	?						
한	중	원		미	안	하	오.		뒤	에	사		강	신	들		애	걸	
				라		들	았	소.		그		속	자	를		죄	인	으	르.
				모	든		것		준		성	금	함		것		아	닌	까
조	명	주		난		영	감		말	을		말	을		수		있		는

				각		은											
한		종	일		것		왜		?								
조		영	구		그		야		영	감		이		속		할	
한		종	일		그		것		로		자		네		모		하

				간	말	이	아.			그	것	을		방	려			주	려	했											
				느	려			날		밖				시	름	의			방	당	말	이	아	。							
				라	고	만				속	간	가			나	무				무	를	하									
				조	망	중		아	나	.				그	때	의	이			누	구	라	말	이	아	。					
				항	행	일																									
				조	망	중		영	강	과				나	사	의	도			무	수			비	밀	이	。				
								있	소.				아		밖	라			말	라			주	심	시	오	.				
				한	중	편		자	네	가				말	면				기	절	초	풍			(	氣	絶	一	風	)	
								관		걸	.			소	강	연				참			기	의	관			일	이	。	
								다		있	소.																				

조	명	공	아	그	라	를	말	고	말	을	하	시	는	
한	동	편	말	한	가	.								
조	명	공	네	.	네									
한	동	편	가	네	네	리	안	술	길	수	있	나	그	를
조	명	공	아	영	간	,	수	라	강	타	우	나	말	
한	동	편	꼭	비	밀	을	지	켜	아	한	.	비	밀	을
조	명	공	아	영	라		말	라	르	을				
한	동	편	그	라	은		말	하	지		말	하	는	



조	명	중	네	네															
환	동	영	장	안	작	살리	실	제	번	인	은	귀	른	사	람				
			이	안	나	리	그	사	람	,	이	상	하	리					
			바	르															
			이	려	중	소	리	환	동	영	무	-	하	며					
			가	슴	을	안	고	스	러	진	다								
조	명	중	감	작	놀	라	활	적	뛰	었	다	가	구						
			저	냈	았	다	가	경	신	을	차	라	고	일	기				
			나	열	이	스	러	진	다	있	는	환	동	영	을				
			다	시	보	놀	라	이	르	켜	세	우	려	다	진				



제 3 목

태 1958년 10월

곳 서울, 김백작 백응정실

나오는 사람들

이숙자 (淑子)

19세

김숙경 (淑卿)

23세

김백작 (伯彝)

52세

삼각수 (삼강)

32세

권중익 (학사)

28세

목 매 ( 栞 梅 )

20 세

시 녀 ( 侍 女 )

40 세

막 이 오 르 면 응 점 실 ~~소~~ 소 카 에 속 카

속 경 나 칸 히 앓 앓 라.

속 경 속 카 아 너 무 부 심 말 이. 너 무

라 겐 에 오 고 부 러 앓 이 여 의 앓 라

방 손 사 가 아 무 리 날 뉘 르 우 리

아 버 지 가 오 실 때 카 진 손 못 델

가 아  
 속 과 너 에 제 미 안 해봐. --- 네 짐 에 운  
 리 가 벌 사 열 흘 이 나 됐 는 데 적  
 장 만 시 키 제 됐 으 나 . . . . 네 따  
 뜻 한 정 르 정 이 거 나 와 어 머 남 재  
 사 <sup>친</sup>할 말 하 량 아 까 주 시 는 그  
 그 마 음 을 생 각 하 나 . . . .  
 속 경 어 무 스 소 릭 하 는 가 아 ? 근 심  
 다 몰 아 버 리 고 즐 겹 게 지 내 . 그  
 려 센 리 멘 탈 은 시 상 (詩 想) 인

				공	과	만		전	강	인		하	르	위.					
숙	과			숙	정	아		나	는		어	러	면	주	아	?			
숙	정			여	기	서		가	만		있	은	면	우	순	사	가		
				대	말	아	서		해		플	거	야.	아.		물	순		
				사		그	사	람		잘		상	였	러	라.		그	기	에
				다	씩	씩	하	고		탐	장		칼	귀	고		만	을	
				씨		공	과		재	주	였	고.		나		그	사	람	
				참		공	러	라.											
숙	과			(	웃	은	며	)		네		아	주		반	했	구	나.	
숙	경			말	하	라	면		조	금		취	해.						

속 가 취하라나?

속 정 정 신 이 조금 비 인 비 슬 환 산 말  
이 야.

속 가 훗 흐 " " .

속 정 야 가 웃 었 다. 그 웃 는 열 굴 이  
이 백 구 나. 야 환 번 러 웃 어 봐.

( 팔 <sup>장</sup> 짚 을 쥐 고 ) 무 리 안 난 제 ... .

속 가 무 리 가 아 나 라 나 ?

속 정 쉼 주 가 녹 아 떨 어 진 제 말 야.

속 가 ( 쓸 쓸 래 기 마 ) 그 것 조 다 지 난

				날	의			추	이										
숙	경	아	나					와	이										
숙	관			때	나	신		리	가			들	의	나		들	는	데	
				편	리			장											
숙	경			원	리			의				때	날	때		무	라	고	했
				라	리	?		(		신	주	조	조	)		중	의	의	나
				무	는			이				와	어	르		기	다	다	깃
				나	라	.		(		남	성	이	르	)		나		숙	관
				이	리														
				다	라														



				의	어	개	를	질	고	)			속	자	씨			내	가	。					
				왔	소			그	름	산			얼	마	나			과	상	했	소	。			
				날		천	방		방	이			했	고				이	제	부	라	는	。		
				걱	정	하	리			만	세	는			속	자	씨		제		무				
				습		길	고			리	키	겠	습	나	라				(	어	개	의	。		
				손	을		떼	고	)				이	렇게					오	실	가	야	。		
				그		꿈	을			내	가		어	렇게					보	아	나	리	。		
				속		자		아	이		함		제	집	아	는							。		
				속		장		삼	각		만		하	는					가	슴	이		뛰	네	。
				속		자		그	런		소	릴		그	만	주	고				네		아	바	리

제 선 번째 오시나?

숙경 아이한테, 나 정신 좀 봐, 그 말을

하러 가 잠깐 잊고 있었네. 내

오신다는 건 보지 못했어.

숙자 (쓸쓸히) 그러면 나와도 해어

져야겠구나.

숙경 그건 왜? 같이 있으면 죄잖아.

숙자 그렇게 말 된다면야 아무도 못하겠나

경철네 선 아버님 오시길 기다라

고 있었잖아. 내가 그 있으면

바람이 평강의 구렁재 꼭대기에  
나, 나 그 불꽃이  
속경의 걱정과 아바리 오시면 의문  
행복과 그러면 무슨 방도가  
있을지  
속경의 아무래도 일이 잘 될 것 같  
자  
속경은 센티멘탈이 아닌 그 만  
속경은 환리만  
이래, 시냇 좌측에서 등장한

시	뵈	아	씨	,	대	감	남	제	사	오	셨	습	나	가	.	(문회장)				
숙	경	아	바	님	이	오	셨	어	.	숙	자	야	조	금	만	←				
					기	라	려	,	문	은	드	라	고	글	을	계	응			
숙	자	(	쉴	쉴	권	고	까	만	피	덕	신	과)								
숙	경	(	우	쭉	안	은	로	회	장)											
숙	자	(	그	녀	의	뒷	모	습	을	보	고	있	라	가	←					
					창	가	르	가	서	밖	을	내	라	분	다)					
					무	러	조	응	화	지	는	제	바	람	소	라	들			
					리	고	,	그	바	람	결	단	을	←	<del>바</del>	람	소	라	들	←
					는	여	간	의	노	랫	소	라	가	들	린	다	.			

창남제비 돌아와서 봄은 왔거만

봄은 어찌 봄이 온 줄 모르시나

산들봉고 물들간 나 회구름 귀편에

달바갈은 남의 얼굴 속아오르네

숙자 노랫소리를 들으며 흐느끼나

사 왔나.

어찌 . 팔팔 삼각수 옷부라기를

지고 좌측 안에서 나의 주위를

			살	리	고		숙	자		뒤	에		가	서									
			삼	각	수		아	씨		아	씨												
			숙		자		(	돌	아	서		물	고	러	니		보	라	가)	앗	!!		
							(	두	손	으	르		얼	굴	을		가	칸	라)				
			삼	각	수		아	씨		돌	라	리		마	삼	시	노		전	아	씨	!	
							구	하	러		온		사	람	일	너	라		아	씨	는		
							너	게		너		있	을		수		없	게	되	습	너	라	!
							이		보	라	기	의		웃	이	로		갈	아	일	고		나
							와	갈	이		이	곳	을		리	해	야		할	너	라		!
			숙		자		무	라	고		은	?		(	뒤	로		물	러	서	나		)

삼	각	수		그	런	게		놀	라	실		것		없	습	니	라.		저
				는		천	중	식	시	가		주	방	한		람	장		김
				응	를		선	생	의		부	하	임	니	라.		선	생	의
				명	을		받	고		다	시	를		구	하	러		왔	습
				나	라.		그	러	나		날		말	고		나	와		함
				게		리	신	하		주	심	시	요.						
주		라		난		랑	신	을		민	을		수		없	소.		당	신
				은		방	순	사	의		부	하	가		아	나	요.		그
				런		을	을		쓰	기	말	고.		정	찰	박	의		신
				부	을		받	고		날		잡	아	가	시	요.			

			이	러		한	미	사	의		발	라	죽		소	라	를		느	
			고			삼	각	수			보	라	기	를		테	이	블	에	놀
			고			음	점	실			뒤	안	으	르		사	라	진	라.	
			이	어		숙	경				등	장								
숙	경		궁	금	했	리,				못	갈	아	입	고		나	오	시	기	
			르		했	어.				구	체	적		여	간		목	했	어.	
						(	보	라	기	를	보	고)		아	나		이	레		
			무	야	?															
숙	자		합		별	을	이			라	았	나.			나	가		상	은	
			르		느	어	가	라	마	라		키	가		팔	라	강	갈		



				나	(	손	깃	하	마	)	수	영	이	이	관	계	
				나	고	점	은	산	점	을	것	어	런	산			
				나	이	가	나	라	나	사	의	보	라	기	의		
				못	함	을	갈	아	인	나	갈	이	죄	선	을	가	
				라	고	고	렸	어									
숙	경			고	래	사	?										
숙	간			고	런	술	수	를	쓰	리	발	고	방	수	결		
				부	항	이	가	든	신	부	를	방	항	고	잡	이	
				가	라	고	했	리									
숙	경			고	렸	라	나	?									

속	경	위	,	천	중	의	씨	가	초	빙	관	관	정	김			
				응	복	선	상	의	명	을	받	고	날	구			
				하	러	왔	다	나	.								
속	경	고	왔	더	나	?											
속	라	너	나	오	는	소	릴	님	부	어	다	를	리	고			
				사	라	라	버	렸	어	.							
속	경	응	-	안	정	하	는	사	관	맞	아	.	그				
				사	관	들	은	별	님	을	다	라	.	그	라	고	
				출	입	은	마	음	라	로	라	고	한	그	래	.	나
				그	사	관	이	안	한	가	리	상	은	내	래	-	.

속	가	어	려	서	?														
속	경	그	사	람	이	악	한	이	있	다	면	네	뒤						
		를	함	각	돌	아	견	은	손	으	르	임							
		을	뵈	어	말	고	함	손	으	르	는	네	뒤						
		각	를	적	어	고	이	항	무	를	출	전							
		뵈	어	것	을	가	야												
<del>속</del>	<del>가</del>	<sup>58</sup>	아	은	것	보	제	드	죽	하	의	뵈	키						
			기	나	취	하	우	고	법	이	"	아	의	감					
			시	타	'	하	겠	나	차	카	리	그	사	람					
			을	분	람	고	것	의	사	기	나	느	람	고					

				사		그	방		보	냈	나	?										
숙		라				나	무		늘	라		값	이	나	사	.						
숙		경				그	권		그	래	.	원	수	사	르		랑	경	이	나	라	?
						그	권		원	들		값		값		과						
숙		라				그	권	래	.	장	상		들		소	의	이		값	리	.	
						무	수		원	이		상	간		것		아	원	라	?		
숙		경				할	것	세	.	.	.	.	.	.	.	.	.	.	.	.	.	.
						이	래	.	우	후		안	의	사		김	만	각		성	상	
김		만																				
						라	고															

속	자	(머리 속의 <del>공</del> 공손히	인사한라)
속	경	아버지	어떤 사나이
		들어왔어	속재를
		데려가려고	했
		너는	
김백작		무라고?	
속	경	속자가	안간라고
		그랬더니	말
		경	김응룡의
		부하라	년
		차기의	웃음
		말	입
		신하라고	그랬대
김백작		그	사
		어	길
		감	느냐?

(복) × 20) 경 바람같이 사과라 버렸대

김	백	작																	
<del>속</del>	<del>작</del>		바	람	같	이	?		그		이	상	하	구	.	여		속	
			자	야		너		그	상	이		말	을	?	.	대	강		
			여	기		즐	거	만	,		너	가	사	람	을			죽	
			왔	다	는		것	을		말	을		수		없	다	.		
속		자		아	버	남		-		-									
김	백	작																	
			나		널		친	라	의	으	로		생	각	하	고		있	
			라		야	,	나	가		없	는	중	안		내		기	어	
			서		죄	신	을		했	다	나		구	말	다	.	말	려	
			말		어	,	죄	가		없	는	만		말	하	고	는		것
			이		범		의	나		것	나		이						

속	라	하	지	만	정	활	에	서	아	버	남	이	오	시
		면	절	감	아	가	라	고	기	라	라	고		
		왔	는	데	이	아	상	더	신	털	리	것		
		습	나	라										
김	백	작	음	—										
속	경	아	버	지	어	려	게	하	면	즐	아	은	?	
		속	라	가	불	상	하	지	아	는	습	나	라	?
		바	지	힘	으	르	속	잘	구	하	주	세	은	
		네	—											
김	백	작	속	라	를	구	하	고	실	은	마	음	이	반

				들		왜		없	겠	느냐...			속		자		말		이
				우		려		아.											
				속		경		그		럼,			속		잘				
								너		떻									
				김		백		작					우		를				
				바		루		볼		거			정		간				
				지		고		오		면			나		들				
													너		가				
				속		경		그		러			속		잘				
								너		의			이						
				김		백		작					애		바				
													세		상				
								을		가			사		람				
													으		로				
													을		로				
													있		지				
								번		들			알		외				
													우		원				
													수						



				세	상	의		이	목	이	칸	간	있	기			안	은	너
속	정			(	흐	는	기	머	)		그	러	만			속	자	가	불
				쌍	카	관		안	을	너	카		아	버	지	,	죄	없	는
				속	잘			정	할	에		넘	길	수		없	어	은	아
				버	지	-		난			싫	어	은	!					
속	자			(	속	정	의	손	을	잡	고	)				속	정	아	!
				(	흐	는	적	은	라	)									
김	백	작		속	자	야		경	아		내	말	을		들	어	보	아	
				라	,	사	자	이		해	결	될		때	가	기		너	희
				들	이		함	게		있	는		것	이		있	는	만	나

				주	제	나		다	는		만	한	이	,	만	한	이	말					
				이	야	,	세	기	에		있	라	가		잡	혀		가	기				
				라	르			한	라	면		나	가		그		끝	을	어				
				리		<del>부</del>	<del>아</del>	<del>내</del>	<del>게</del>	나	.	그	<del>라</del>	구				라	시				
				여	행	을		편	날		수	르		없	고			흔	—				
				숙	경	정	의		아	바	지	,	어	바	가		없	어	으?				
				김	백	각		에	키	늘	...		강	국	에		대	한	나	채	며		
								이	란	게	있	는	려										
								<del>이</del>	<del>란</del>	<del>게</del>	<del>있</del>	<del>는</del>	<del>려</del>										
				숙	경			아	바	리			채	면		깎	에		숙	잘	나	주	라
								는	가	여	으	?!		나		시	로	어	우				

김	백	작																		
김	백	작		그	런	순	서	지	.....											
속		라		아	버	노		죄	승	함	나	라.		아	무	리		어	권	
				소	견	이	리	만		이	라	르	아		있	겠	음	나	라	
				제		침	으	르		가	겠	음	나							
속		정		그	전		안	태		화	약	을		기	고		선	으	르	
				들	어	가	는		물	이	야	.		그	런	들	바	인	내	침
				에		있	어													
속		라		그	런	면		아	버	노	계		화	가		다	리	권		
				아	는	오														
김	백	작																		

속	경	아	버	지	이	?	—												
김	백	각	속	자	야	내	시	키	는	말	을	들	렸	나	?				
속	경	무	수	일	이	데	은	?											
김	백	각	속	자	를	강	원	부	하	산	동	막	으	르	보	내			
				자	구	나,	거	기	는	남	의	이	목	을	가				
				킬	것	없	고,	또	한	그	놈	만	마						
				르	이	순	크	하	고	나	이	르	그	만	하	나			
				내	질	에	있	는	지	와	다	를	제	었					
				을	거	다,													
속	경	아	버	지	,	지	체	르	<del>불</del>	하	가	르	되	르	?				

김	백	작	그	건	안	되.	이	때	라	리	같	이	원	전
			너	와	숙	라	가	함	께	아	어	겠	라	면
			세	상	이	의	심	라	질	아	겠	나.	그	라
			너	는	예	기	에	왔	르.	대	신	충	격	환
			힘	리	기	를	달	려	보	낼	테	나	조	급
			걱	정	말	아	라.	숙	라	생	각	은	어	려
			나	?										
			숙	라	아	비	보	시	키	는	라	르	하	겠
			김	백	작	오	나	그	말	라.	의	기	사	바
			련	면	?	...	...	...	...	...	...	...	...	...

				졌	다	는			그	사	람	이		이	칼		떨		대	비
				하	서				보	래	기	를		갖	다		뒀	구	나	
				속		경			사		그	러	면	?						
				김	백	각			의		시	간	의	라		속	칼		의	로
									고		개	서		빨	리		옷	을		갈
									경		아		마	를	에	리		편	을	사
									의		서		옷	을		의	려	라		(
									가		간	라	)							
				속		경			의		아	바	리		의	시		우	리	의
				속		경			속		란	를		제	리	고		의	로	를

				간	라	.		렁		빈		음	점	실	,		소	리	밖	는		지
				감	이			감		은		라										
				주	금			의		중		질	모	에			안	경	카	리		킨
				남	감	미		인		숙		자	를		데	라			숙	정		이
				자	시			나		은		라	,									
숙				정		야		-		할		미	남	라	야	,		나		이	랑	게
				잘		당		기		삼		갈		함		밖		어	.	나		정
				반		해		바		렸		기	.									
숙				라		(		숙		정		나		소		를		잡		고	)	숙
				고		말		라		날		의		중		사		해		사		정
																						어

속	경	(	속	의	손	을	맞	잡	고	)	속	자	야	미
		안	까	라	,	편	을	까	지	지	커	주	질	
		못	했	어	,	가	기	가	관	있	어	,	내	
		공	꽃	아	갈	제								
		(	서	로	짜	만	고	호	느	킨	라	)		
속	경	(	속	자	를	밀	어	나	며	)	며	이	러	고
		있	은	나	주	사	랑	까	는	남	녀	의	이	
		편	갈	구	나	방	지	만	사	내	가	며	라	
		부	로	우	것	사	아	가	게	편	했	어		
		이	라		김	배	자	상	의	사	나	와	바	
													라	



				머 )		사	들	이		와		이	라	?		라		이					
				간	원	라.		그	만		런	나	르	크		하	라.		이				
				응	?		사	주		미	남	이	구	나		하	하	"	"				
				(	투		어	라		말	어	진	라)										
				김	박	각		라		어	서		나	가		라.							
				숙		라		숙	라	어		우	라		아	라	남	라	어	나	가	가	
				느		곳		주	돌		알	라		르	라	어		라	어	라	어	라	
				사		오		시	거	전		응		어									
				숙		경		라		알	어	사		할	라	어	나		말	라	어	나	그
				라		고		나	무		숙	라	어		말	라	어	나		르	크	어	

하 음 -

무 투 환 른 으 르 휘 강 한 라 - 사 이 - 양 권

( 보름 ~~후~~ ) -

무 대 에 ~~한~~ <sup>이</sup> 가 . ~~가~~ <sup>←</sup> 권 속 경 소 라 에

사 아 ~~한~~ 을 보 고 양 라

속 경 ( 책 을 ~~가~~ <sup>가</sup> 랐 다 ~~가~~ <sup>가</sup> 랐 다 하 며 호 구

해 한 ~~라~~ ) 속 ~~가~~ <sup>가</sup> 러 보 지 가 닷 새

나 리 는 데 왜 소 식 사 없 리 ...

				지	금	금	은			전	기	라	는			있	은	아			하	는			
				다																					
				이	때			목	과			흥	분	하			말	글	은			관	북	이	
				사				등	장	하	면														
유			대			아	이			속	경	아	이			의	남			하	였	어	도		
유			경			(	관	을		상	과	사	>			아	나	!			유	대	가	)	
				원				말	이	야		가	기			공			있	거	라				
유			대			(	속	경		결	은		다	가		있	은	대	)			아	이	)	
				사				말		났	은	유			우	라			아	이		소	의	을	)
				를				났	은	나		있	은	!											

속 경 아 나 . 무 스 일 앓 앓 나 ?

속 대 아 직 물 라 음 아 션 ?

속 경 무 스 일 인 데 <sup>구</sup>래 ?

속 대 우 리 아 씨 가 경 칼 세 잠 려 가 리  
우 .

속 경 ( 벌 려 일 어 사 라 ) 무 라 고 ? 아

우 그 계 칼 말 이 나 ? 두 가 그 래 ?

속 대 우 리 잠 돌 돌 쇠 가 정 거 강 에 서 뵈  
대 은 .

속 경 사 람 을 잘 못 뵈 려 리 가 <

				있	나.			그	런	레			돌	돌	쉬	라			누	구	라	
				<del>누</del>	<del>구</del>	<del>라</del>							말	이	누	?						
속		매		우	리	집		남	자				하	인	이	여	오.		함		아	
				씨	는			모	를	잡	나	라.		우	리	집			아	씨	가	?
				아	씨	밖		으	로				피	신	칸	시	라		곧		들	어
				우		신	방	(	新	방	)		이	여	오.							
속		경		야		속	매	야				그	것		가	진	말	이	라.		네	
				집		아	씨	가			우	리	집		으	로		온		뒤		
				구	름	칸		네	말			맞	다	나			신	방	이		보	
				라	르		양	은			네	밖		아	씨	를		알	어		?	

우	마	나	르	민	권	동	교	복	음	부	하					
				잔	부	레	,	그	방	신	의	의	이	말	하	는
				아	씨	의		부	습	이	하	나	르	아		를
				의	이											
우	경	갈	은	사	람	이		방	은	4	사	람	을	갈		
				못	봤	겠	지.	그	런	제	방	신	이	라	4	
				들	들	의	가	방	신	이	라	말	이	부	?	
우	마	네		원	쫓	은	가	락	이		하	나	르		있	
				의	이		가	우	신	의	방	신	말		말	라
				고		말	권	한	나	가	의					

수	경	아	가	수	생	사	관	인	의	의									
유	바	경	상	중	수	관	의	수	학	라	의	.	그	<del>관</del>	<del>사</del>				
		유	중	학	관	의	수	학	관	의				학	관				
		의	관	의	관	의	의												
수	경	유	의	의	그	유	의		학	관	의			의	관	의			
		의	관	의		의	의	의	의										
유	바	의	관	의	그	유	의		학	관	의			의	관	의			
		유	의	의	그	유	의		학	관	의			의	관	의			
수	경	유	관	의															
유	바	그	관	의	유	관	의	의	의	의	의			의	관	의			

				도		상	금	이		람	이	나	서			정	남	적		손	
				에		취	키			머	리	카	락	이		우	리			아	씨
				의		것	이	라	고	말			<del>하</del>	<del>고</del>	<del>서</del>		무	슨			상
				관	래	기	르			이	집	에		뜨	나	뜨	나	고			부
				물		해		크	러	4				그		일	은		할		관
				못		했	라	고		그	러	머	서			라	기	르			무
				는		증	가	만		감	은	면			아	씨	의			머	리
				아	관	이		아	나	<del>하</del>	<del>라</del>	고			반	영	할	것	은	4	
				응	서		하	라	고		그	했	다	은							
				숙	정		은	사	르		뜨	나	뜨	나	?						



무	과	가	꿈	씩	오	고	있	어	은	그	런	레	그
		돌	돌	쇠	가	그	늘	은	나	를	무	척	주
		아	라	맨	사	할	마	할	마	가	마	늘	려
		라	라	나	고	있	어	은	어	런	려	는	
		그	집	에	사	라	고	르	와	은			
숙	경	그	돌	돌	쇠	가	짐	말	속	갈	보	았	던
		가	?										
숙	매	아	씨	,	그	병	신	녀	의	의	하	는	말
		기	가			만	려	은					
숙	경	아	나		왜	?							

부	매	권	중	식	질	아	는	나	,	들이	시	크	다
숙	경	그	환	이	상	환	산	관	이	구	나.		
부	매	아	씨	,	무	이	권	말	을	했	사	으	
숙	경	문	제	?									
부	매	숙	자	아	씨	가	아	산	봉	을	크	리	신

				봉	이	래	오												
숙	경	신	함	봉	이	그	것	을	어	떻	게	?							
우	매	아	씨	가	우	리	집	마	보	씨	계	숙	라	아					
		씨	가	눈	발	으	르	감	라	는	길	편	리						
				한	적	있	조	?											
숙	경	있	어	.															
우	매	그	편	질	사	함	봉	이	보	았	다	고	그						
				했	어	오													
숙	경	아	나	?	그	계	정	말	이	나	은	!							
우	매	돌	돌	희	가	그	래	오	사	함	봉	이	그	것					

을 알고는 마침내 제 형님을 찾

대요.

숙경 뭐 뭐라고?

옥매 돈을 내라고요. 돈을 안 내면 경

할에 알려 갖고 공갈하겠다고요.

숙경 그러세요?

옥매 돈은 안 주고, 돈독놈이라고 돈을

죄 부어 돌려 보냈대요.

숙경 그러니까 경찰한테 밀고 했잖

이구나.

복	대	네	네	그	카	우	속	광	아	씨	르	할		
			갈	아	씨	네	우							
		이	대	시	네	관	후	에	사	명	함	을	들	르
시	너	아	씨	(	명	함	을	주	머	)	이	라	사	람
			이	아	씨	레	민	원	창	함	너	라		
숙	경	(	명	함	을	보	고	놀	라	머	)	아	이	어
시	너	네	(	프	루	리	장	)						
우	대	그	누	구	십	너	카	아	씨	어				

아래 시너 컵 증식을 안내해서  
 후에 등장한다.  
 속정 컵주사 -  
 컵 증식 속라씨 걱정 많이 키웠습니다.  
 옥매 (달려가서 팔을 덥혀주고) 나  
 라 (느려온다)  
 컵 증식 오 - 옥매야. 너도 걱정 많이  
 했잖아.  
 속정 컵주사. 속라 소식을 들었습니까?  
 컵 증식 네. 모든 길로 유순할 만하다.

				길		들	아	러	고		경	찰	서	에		들	러	나														
				강		원	드	르			출	장	가	고		있	어	서		방	순											
				새		를		만	나		대	충		대		길		들	고	...												
				숙		자	씨	르			만	필		했		습	나		라													
				숙		정		아	나	,		고	러	면	9	...					(	흐	느	진	다	)						
				옥		매		아	씨	계	서	...									(	흐	느	져	운	다	)					
				천		중		식		자	,	중		있		으	시	조														
								갈		어		소		라		에		있		아		천		중		익		만		바		라
								볼		다	.																					
				천		중		식		이		경		대		뜻		제		와		서		좌		송		함	나		라	.

				여러분	제서			연락	해			주신			적부									
				르		가	친	다				병	환	이		회	복			되어				
				상	경	하	려					했	으	나		그	때			우	승	사	의	
				려	질			만	났			습	니	라										
				속		경		그				부	의											
				려		를		무																
				너		.		다				급	해	진										
				사		정		을				알												
				대		구		르				나												
				김		응		록				탐												
				만		났		습				니												
				속		정		그				랬												
				려		어		은																
				려		를		식				비												
				용		을		주				신												
				사		정		을				그												



알겠습니<sup>다</sup>.  
 숙경 같이 왔어요?  
 천중식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sup>는데</sup> ...  
~~그날 밤 <sup>잠</sup>당김<sup>고</sup> ~~취~~ 말았습니<sup>다</sup>.~~  
 다.  
 숙경 네에?  
 천중식 며칠 동안 찾아 봤습니<sup>다</sup>만 첫  
 사이였습니<sup>다</sup>. 그래서 다른 칼감  
 을 <sup>보</sup>츠<sup>고</sup> 했<sup>는데</sup> 그<sup>로</sup> <sup>김</sup>우<sup>날</sup>  
 빼고 말았습니<sup>다</sup>.







달 이 란 사 람 이 있 는 지  
 수 경 선 갈 이 라 고 은 ?  
 쥘 중 의 그 사 람 은 경 찰 령 수 사 부 장 으 로  
 십 여 년 수 사 를 전 문 으 로 한  
 사 람 인 데 , 이 사 람 은 부 하 를 수  
 십 명 씩 이 나 두 고 서 경 성 안 의  
 비 밀 이 란 비 밀 다 조 사 하 고 있  
 담 나 라 . 그 러 나 이 사 건 에 대 해  
 서 는 조 사 하 고 있 는 리 르 보 름 나  
 라 . 그 래 서 ~~수 사~~ 오 늘 그 이

				선	갈	을		찾	아		가	기	로		했	습	니	라	
속		경		(	상	각	이		나	뜻)		이	선	갈		이	라	고	
				했	다	우	?												
척		중	식		아	나	,		속	경	시	로		아	습	나	리	?	
속		경		아	나	,		모	들		아	침		아	버	보	게	서	사
				람	을		시	켜		이	선	갈	이	람		사	람	을	데
				리	고			모	라	는		말	을		뵈	들	었	습	니
				이	래		시	켜		등	장	하	여		려	니		한	동
				속	경	에	게		전	하	고		드	루		프	상	하	고
속		경		하		를	신	의	아		주	소		상	방	이		왔	지

천	중	의	수	신	의	부	숙	경	의	로	의	의	4				
				관	변	나	응	을	보	의	조						
숙	경	(	관	의	의	나	중	의	에	계	남	간	과)				
천	중	의	(	남	의)	제	제	해	물	과	아	의	계	사			
				숙	자	양	의	구	명	을	의	하	의	구	아	로	
				매	신	의	부	노	고	의	태	하	의	무	행	관	
				장	사	를	부	관	4	라	아	의	숙	자	양	의	
				무	죄	한	중	과	가	발	사	행	분	리	화		
				보	되	있	은	4	의	신	하	의	가	바	라	다	
				이	사	람	은	성	간	방	무	관	사	가	발	의	행





속	관	부	수	사	아	닐	카	은	?										
창	공	수	아	나	강	원	르	분	관	의	출	장	간	계					
					트	림	었	우	나	그	사	람	우	아	닐	림	나	자	
속	경	이	리	막	관	들	의	계	책	아	닐	카	은	?					
					이	관	계	우	리	를	안	심	시	켜	속	라			
					구	명	은	동	을	방	향	하	려	는	-	-	-	-	-
창	공	수	그	관	계	생	각	환	수	로	있	겠	리	만					
					이	관	리	만	으	로	중	리	시	킬	수	있			
					겠	습	나	자											
속	마	(	플	아	사	나	오	바	)	홍	돌	돌	쉬						

			깃 이		아	놀	카	은 ?																								
			친		중	의		아	우		돌	돌	희	가		누	구	누 ?														
			속		경	매		그		돌	돌	희	가		뭘		안	라	그	그												
						려		레		나		속		라		너		짐		하		인		라	은							
			친		중	의		(		싱		갑		게		웃		두		라)												
			을		때			전		에		르		마		씨		레		말		삼		들		왔		리		마		느
								그		늘		돌		희		가		진		밤		을		지		가		안		라		
								누		너				속		라		될		부		귀		르		쉬		방		시		킬
								사		람		무		제				반		이		라		너		꾸		이		사		
								건		을				코		사		만		느		느		을		수		이		너		삼

				각	수	가		있	는	너		했	어	는.								
				권	중	의		그		라	미	있	는	사	람	이	군.					
				어	래			무	래		뜨	어	서		이	삼	관	남	자			
				수	리	가		들	린	다.												
				어		남		권	중	의		말	과		음	때		말	이	맞	는	너
				(		소리)																
				다		(		세		번		반		복)								
				모	루			놀	칸	다.		권	중	의		그		수	리		나	
				는		곳		으	르		뜨	어		들	어	간	다.					
				음		때		는		수	관	의	게		부	의		서	서		문	
				은		문		다.														

속	경	우	리	야	놀	날	것	없	다.	우	리	집					
				원	하	가	슴	씩	이	런	소	리	가	들	런	런	
				라													
				천	중	씩	패	리	를	가	웃	둥	기	리	면	서	라
				시	나	문	라										
천	중	씩		그	이	상	하	라.		소	리	는		나	는	레	서
				람	은		어	어	은								
속	경	우	리	집	에	선	속	라	말	만	하	면	저				
				런	소	리	가		들	런	말	나	라.				
천	중	씩		그	럴	라	면	택	에	람	정	이		람	복	하	라

				왔	라	는		말	이	구	은								
속	경			그	런	가		봐	은		그	런	리	만		한	번	도	
				우	릴			외	름	권		일	은		없	었	어	은	
음	매			(	우	는		결	심	을		관	통		만	조	하	게	)
				견	주	사	,	아	씨		금	방		그		소	리	가	
				우	리	집		돌	돌	외		목	소	리		갈	았	서	은
속	경			네		집		돌	돌	외	가		여	길		어	떻	게	
				와		어													
견	주	사		그	것			네	가		잘	못		들	은		기	야	
목	매			꼭		갈		았	는	데									

첫 증식 (갈찬 삼각라) 자 이 선 칼 썰

품 만나고 오겠습니가.

숙 정 수사부장 지냈다는 그 사람 말

이름. 네 라녀 오세은.

좌측으로 걸어 나가며

숙 정 발리 풀안 오세은 네.

첫 증식 네 글 오겠습니가.

유 매 우리 집으로 안 오보셔요?

숙 정 아, 걱정 마. 우리 집의 방 장이 갖

각라.

걱	중	의	욕	매	걱	정	마	담	부	간	이	걱	의
			신	떨	리	기	르	했	단	다	욕	매	르
			주	놀	러	와	응	!			(	퇴	강
			두	여	자	외	돌	아	오	마			
욕	매	걱	중	사	르	걱	정	많	이	했	나	보	주
			많	이	여	웠	어	요					
속	경	왜	걱	정	안	되	겠	나					
욕	매	속	라	아	씨	가	부	죄	르	나	오	시	면
			들	은	결	혼	하	겠	군	!			
속	경	그	야	물	르	이	리						

목	매	아이	공	아	그	런	공	은	부	부					
				세	상	에	어	을	가	에	트.	난	아	씨	를
				라	라	가	사	도	아	스	릴	라	요.		
숙	경	시	집	은	안	가	고	?							
목	매	내	같	은	제	시	집	은	무	슨	시	집	이		
				에	요.	그	런	제	사	시	는	걱	정	안	
				되	시	나	은	?							
숙	경	나	가	무	슨	걱	정	을	?						
목	매	응	수	사	가	안	모	셨	어.						
숙	경	응	수	사	안	오	시	는	제	나	가	왜			





시 너 방금 어떤 사람의 옷이 전하 2 <

갔습니 라.

숙 경 (편지를 받아 보려)

낮에 왔던 그 사람 아나겠소?

시 너 네. 그 사람의 옷이요.

숙 경 그래 갔소?

시 너 바쁘게 갔어요.

숙 경 좋아요.

시 너 되돌아 리갈 한 라

숙 매 무슨 편지요?

숙 경 또 보낸 사람 주소 ~~성명~~이 되어

우편과 우편번호가 붙어 보냈으므로

숙경 (편지를 편지 봉투에 -마이크-) )

모든 아침 급하게 편지를 쓰러 버

와 같이 속삭이기에 대항 부위의 증

거가 전부 확보되어 이제 비르사

탐정 을 라 마쳤기에 은들 밤 7

시에 제가 마씨를 ~~찾~~ ~~우~~ ~~가~~ 사 탐정

상황 전부를 설명하여 쓰러진 두 나라

				이		일	이			발		표		리		면			의		기		양		양		했			것							
				방		순		사		는				늘		라			기		걸		할		것		이		고			가					
				편		한				숙		자		양		우			침		<del>천</del>		백		을		귀		에			무					
				죄		로				방		만		필				정		백		작		살		해		사		건			—				
				세		상		에			일		격				있		었		건				홍		악		하		고			라			
				관		하		고			부		감		한			대		법		죄		의		심		각		한							
				차		인		과			중		기		가			부		죄		질		것		일		너		라			.				
				그		러		나			제		관		정		상		황				설		명		은						다	음	<		
				부		들		의			면		전		에		서				하		겠		아		고		나					거	벽	<	
				그		시		카		기					반		르						초		창		해								주	시	기

바 람 4 가.

1. 김 백 작 대 감

2. 권 중 식 학 사

3. 김 숙 경 아 씨

4. 옥 매 양

옥 매 양 은 그 곳 에 서 그 날 기 라 리 계

해 주 실 시 오

김 이 름 을 권

옥 매 ( 숙 점 에 계 갈 라 주 보 ) 아 씨 , 김

				응	축	이	각			것	주	사	가			주	방	한			대	구	
				관	정			아	나	예	는	?											
속				정		음		맞															
속				매		우	라	의		의	심	이		라			플	리	겠				르
속				정		이	제	사		라			알	겠	구	나.			지	금	카	리	의
				스		상		한		것		일	들		주	가		그		사	람	들	이
				한		일		의		라		결											
속				매		우	라			아	씨	가				무	리	방	만			되	라
								했		지	은		그		말								
속				정		음		수		가		고											

속	매	(	속	경	의	손	을	잡	고	)	아이	중				
			아	,	아이	구	중	아	라							
속	경	속	매	아	반	잡	구	나								
		두	터	라	기	빠	날	뛰	라	감	격	에	넘			
		쳐	쳐	안	고	목	을	돌	아	우	라					
								—	서	서	키	만	나	린	라	—

제 4 막

때 1906년 봄

곳 금강산 법화암 (法華庵)

나오는 사람름

보 살 (창심 - 농파) \* 알곡부 검은색 33 세

이 상 하 (尙夏) 40 세

옥 레 (玉禮) - 산채녀 19 세

김 석 봉 (石奉) - 산도죽 35 세

무 대



중 앙 에 즉 리 의 거 실 ( 居 窟 ) , 그  
 우 려 이 범 강 으 르 , 좌 려 이 하 산 ( 下  
 산 ) 의 길 르 가 정 ( 假 定 ) ~~의 길~~ .  
 막 이 으 르 면 프 락 과 함 제 엄 볼  
 ( 정 구 엄 진 언 ) 소 리 가 들 리 라 .  
 하 랑 뒤 , 이 상 하 와 <sup>어린아이를 안고</sup> ~~우 려~~ 좌 려 에 서  
 등 장 하 연 엄 볼 소 리 를 들 고 있 라 가,  
 우 려 으 ~~러~~ 오 ~~를~~ ~~가~~ ~~시~~ ~~면~~ ~~안~~ ~~리~~  
 나 ~~우~~ ?

이	상	화	여	기	은	리	가	벌	서	사	흘	이	나		
			됐	는	래,	가	보	아	야	리					
우	래		...												
이	상	화	너	머	나	아	직	은	우	래	가	숙	자	를	
			왕	은	것	을	모	르	고	계	시	느	나	!	
우	래		보	살	만	이	나	병	을	고	려	서	보	나	
			갓	라	아	죽	데	라	고	있	었	기	래	문	
			이	우	라	어	머	나	는	그	런	글	르	만,	
			알	고		있	습	나	라.						
아	상	화	아	나	,	이	재	가	임	신	함	것	을	행	이



			이	식	소	조		제	악	업	(	我	昔	所	造		諸	業)							
			가	무	무	시		탐	진	치	(	皆	由	無	始		貪	瞋)							
			동	신	구	의		업	소	생	(	從	身	口	意		業	所	生)						
			늘	죄	아	금		가	참	회	(	一	切	我	今		皆	懺	悔)						
			이	장	화			유	래	.	사	나		숙	자		모	친	...	9	.	숙	자	.	
								어	미	9		그	참		부	르	기	가		알	곳	구	나	.	
								뜻				달	만		기	다	려		주	어		음		나	.
								부				레	리	려		오	려	.	상	식		르		입	적
								(	入	籍	)		하	라	구	.		그	라	면		유	래		

				아	나		속	자		아	나		속	자		어																					
				미		마	음	과	르		기		크	나		살	수		있																		
				단		말		야																													
				우		레		그	권		그		만		주		우		우		들		가		나		면										
				또		언		레		우		나		것		습		나		기		영		유													
				이		상		화		그		거		야		일		주		일		만		나		의		한		번		씩		우		기	
				로		태		있		지		안		=		나		.		그		등		안		꼭											
				꼭		우		기		있		있		=		나		.																			
				우		레		이		방		에		가		나		면		다		나															
				같은		생		각		이		자		꾸		무																					

이	상	화	왜	?	목	례	야	나	를	못	보	드	함						
					나	나	갠	기	만	나	는	목	례	와	우	리			
					속	라	를	안	보	고	는	못	견	더	.	듯	등	이	<
					무	남	죽	너	금	죽	같은	외	등	딸	을	왜	<		
					못		본	라	는	말	이	나	?						
목	례				나	는	아	무	래	로	꿈	을	꾸	고	있	는	<		
					것		같	아	유	.									
상	화				우	가	?												
목	례				이		산	골	제	집	아	이	가	사	을		대	감	
					딱		부	인	은	르	들	어	간	라	는	✓	아	무	래

				드	밀	러	리	리	가		말	아	우		꼭		꾼	을	
				꾸	나		있	는	것		갈	라	우						
아	상	하		무	슨		말	을	위	고		있	는	거	야		나	가	
				이		음	강	산	에	서		북	려	를		말	나	리	
				아	는	있	어	라	라	면		나	는	발	서		산	리	신
				되	었	는		거	야		그	런	말	은		하	리	말	아
				이	게		라		인	면	이	야							
우				려		아	부	리		인	면	이	라	게	르		어	럼	게
				를		무	리	랑	이	가		서	을		행	반	을		만
				나		아	이	까	지		날	고		그	것	를			만

몰래  
 이상하 그제라 인연의 소치라는데 거야  
 전상에 나와 부러는 다정할 부  
 부이엇을 것이야. 그렇기 애타고서  
 야 금강산에 자살하려고 왔던 너  
 가 부러를 보고서 죽으 사뿐  
 풀 알리 붙잡은 것이 이상하리  
 애타냐 ? 그러니 부러로 친할 사  
 람을 만났듯이 바쁘려 죽기 끝 애타  
 애타냐 ? ... .. 아니라에 풀을 맨 사가



				가	←	아	무	리		날	아	가	르		줄	을		강	기
				면		재	가	리	르		돌	아	으	플		것	과		꼭
				갈	은		을	이	야.										
				이	러		침	심	보	살		감	삼	과		가	사	를	길
				리	고		우	편		안	은	서		등	강	할	라		
				보		살		아	이	구	,	대	감	남		벌	서		을
				습	나	가	.	옥	래	르		결	에		있	었	구	나	
				이	산	화		전	북		밖	산	(	조	수	)	는		마
				보		살		네		방	금		마	했	습	나	라.		옥
								라		것		만	었	는	누	?			

모	래	여	-																
이	상	하	여	번	은	보	살	남	에	대	되	를	나	부					
				만	의	가	쳐	습	나	라									
보	살	별		말	습	을													
				아	함	나	라	?											
				보	고														
이	상	하	여	러	가	리	를	보	살	남	에	대	부	락	드				
				림	나	라													
				가	겠	습	나	라											
				이	입	었	습	나	만										

				가	보	살	려		주	신	라	면		그		은	혜		
				질	근		잊	기		안	갓	습	나	가.					
보	살		사	이		대	감	보	르		은	혜	는		무	슨		우	
				혜	관		말	입	나	가.	잊	을	르		얼	려	마	십	
				시	오		소	승	이		잊	는	이	상		조	금	르	
				각	정	마	십	시	오		아	함		은	들		아	침	
				에		말	씀	드	관		려	나	시	기		전	에	하	
				라		적	어	주	시	면		을	려	를	...				
이	상	하		혜		감	박		잊	갓	습	나	가.		보	살	남	이	
				말	씀	관	리		안	갓	라	면		아	주		잊	을	번

				했	구	으	.	그	라	면	기	급	스	리	으		
보	살	네		그	결	재		하	집	시	우	.					
				이	상	화		방	에	올	라	가	서	먹	을	갈	아
				글	을			쓰	는	다	.						
보	살	옥	레		나	는		환	중	겠	다	.	서	을		내	
				감	남			판	에	들	어	가	서	편	안	위	게
				살	고	.		귀	영	조		발	고	,	숙	라	기
				아	주			부	통	이		<del>부</del>	<del>가</del>	<del>는</del>	거	야	.
				공	공			참	아			갈	래	.	말	세	말
<del>우</del>	<del>리</del>			라				이									

우	레	하	이	보	살	남	르	...	나	는	모	두	가							
				꿈	만	같	이	사	...											
보	살	호	...	꿈	르	그	런	꿈	이	라	런		반							
				밖	을	커	르	시	람	리	안	겠	다.							
			이	러		이	상	하	글	을	다	찾	아	있	는					
				보	고		미	소	르	무	우	마		프	강	을		정	의	
				사			들	고		나	러	와								
			이	상	하		보	살	남	르	우	레	르		들	나	보	심	시	우.

(10x20)

1. 玉禮는 아즉 正式으로 續婚禮式을  
 履行치 못하였으리 眞正하 本人의  
 專任에 들임이 아니니 萬一 本人의  
 死後라도 本人의 집에 入家할 때는  
 다른 親戚이 아무 異議를 無할事  
 2. 女息淑子는 玉禮의 本人間의 所生  
 인즉 眞正하 本人의 子息이라 日後  
 에 아들子息을 生産치 못할면 淑子  
 로써 相續人으로서 定할事  
 의 證書는 後日 淑子에게 相續權이

있 음 과 同 時 에 王 禮 人 李 尚 夏 斗

財 產 을 自 由 으 리 라 고 申 請 李 尚 夏 斗

집 全 權 을 保 有 할 權 理 人 있 음 을

證 據 하 기 爲 리 아 作 成 할

京 城 大 寺 洞 證 主 李 尚 夏 斗

이 상 과 나 평 습 나 리 , 이 말 리 만 믿 어 주 시

겠 습 나 리 보 살 남 ?

우 레 그 라 면 대 간 상 전 에 는 임 가 북

한 다 그 런 말 습 을 나 리 유 ?

이 상 하 휘 - . 그런 것 아 나 아 .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증거 같은 것이 믿을

수 있다. 사람 을 이 관 알 수 ~~있~~다

방음의 경우를 생각 ~~하~~ ~~수~~ 없 레 를

진심으 를 아 까 사 쓴 거 아 .

보 살 을 수 나 라 . 대 감 제 사 우 레 를 사 람

하 는 마음 이 리 극 화 심 나 라 . 말 야

휘 리 만 . 우 레 를 레 리 2 가 시 만

소 승 수 적 적 하 사 어 이 하 겠 나 .

이 상 하 부 관 보 르 이 런 암 가 상 활 을 청 산



				하	시	고		서	울	로		오	십	시	오	.		그	러	면		
				제	가			은	혜	갈	음	으	로		갈		보	시	겠	습		
				나	라	.																
				옥	례			보	살	남		그	럼	시	라	.		서	울	에	가	서
				귀	와			갈	이		삼	시	라	유		네	-					
				보	살			나	는		옥	례	네		갈		옥	모	노	릇	이	나
				하	고			늘	늘	늘	.		이	리		속	새	를		려	나	
				옥		음	이		나	리		속	간	속	으	로		가	시			
				들	어	가		겠	냐	.		나	는		려	생	을		부	린	남	
				보	시	고		살	려	시	나			대	감	려	사	는		어		

				름	가	을	찰	에	우	레	와	속	과	를	려	
				리	고	그	하	너	카	라	기	라	라	든	가	.....
				그	거	나	우	세	브							
이	상	관	관	"	"	관	이	경	구	말	이	지	트			
보	살	네	네	그	려	면	방	의	나	식	사	갈	은			
				것	을	소	승	이	말	이	사	하	리	트		
이	상	관	고	말	습	너	가	반	드	시	부	살	남	을	랏	
				장	습	너	가									
보	살	우	레	르	그	때	아	쿠	홀	를	관	마	님			
				이	라	사	속	과	를	김	경	시	우	시	구	

				리	양	-													
옥		레		아	이		보	살	남	은	-								
이	상	관		(	증	수	를	보	살	은	리		나	구	리	)			
				이	레		러	나	아	갓	습	나	라						
보		관		아		그	리	시	은		(	증	수	를	물	속	은		
				공	리	)		화	로		저	물	어	기	나		그	리	어
				우	갓	은		아	별	리	고	(	애	별	애	환	고	)	리
				기	나		러	나	는	사	람	을	보	만		들			
				심	심	해	는	...	...										
				이	상	관		방	은		물	과	기	사		물	속	과	지

			광	이	를	고		나	와	서									
이	상	관		보	살	관		안	녕	관		계	심	시	오		또	오	
				것	습	나	라		(	프	젝	트	에	서		돈	볼	트	를
				적	바	어	)		얼	만		적	리		안	습	나	라	만
				받	아			주	심	시	오								
보	살			웨	트	를		주	심	나	라					그	만		주
				심	심	시	오												
이	상	관		아	습	나	라		그	냥		가	기	가		섬	섬	관	서
				그	려	나		받	아			주	심	시	오				
보	살			오	웁	라		가	실	적	만	라			돈	을		받	으

				나	꼭	무	순	여	관	심	주	인	갈	습						
				나	라			그	려											
이	상	하		그	런			의	미	가	어	나	라	미	안	해	사	.		
보	살			(	문	명	류	를		말	=	어)		혹	은	호		그		
				라	면			강	신	네	들	은	사	랑	의		부	금	자	라
				왜	라	면		공	중	사	?									
이	상	하		학	하	"	"	"	사	랑	의		산	감	"					
보	살			말	습	나	라	.	<	사	랑	의		산	감	>			그	런
				지		그	런	구		말	고	우								
이	상	하		자		그	말		가	어	겠	습	나	라	.					

			이	때		아	쪽	에	서		감	석	봉		살	나라	시		나
			노	라		이	들	을		보	고	는		급	히		물	을	
			습	기	라														
보	살		여		옥	대	야		숙	라	를		업	고			대	감	남
			전	송	해		드	라	라		(	어	린	대	를		얼	여	
			주	며	)		아	이	고		숙	라	야		귀	엮	기	르	
			관	리		←	조		언	제	블	리		보	르	나			
			아	버	는	제		의	사		드	라	야	리		음	!		
			이	상	하		옥	려		갈	이		나	기	려	는		려	
보	살		아	이		참		참	빡		했	구		아		저		래	

				감	년		감	시	만		기	라	려		구	세	은							
				시	상	하		옥	례		돌	아	보	나		보	살		베	르				
				지		방	에	올	라	가	서		모	사	키	에			있	는				
				바	라	래		<	스	님	들	의		나	무	익	기	>	의	작				
				문		속	그	룩	에		감	긴		환	봉	리		하		들				
				그		보	려	와	서															
				보		살		대	감	년		이	러		송	화	(	松	花	)		미	숙	
				가		름	나	가			왜		전	에	르		라	서		보	은	감		
				습		나	라	?																
				시		상	하		아		예		올	향	기	가		그	유	했	건		그	리

				말	이	리	으	.	어	대	고	발	서	일	맛	이		
				감	감	나	라		그	려	.							
보	살			내	려		가	시	라		목	이	만	르	신	과	생	망
				물	마	시	리		말	고		이	것	을		공		복
				그	물	을	마	시	세	으	.	그	러	만				한
				속	이		든	든	할		것	나	라	.				
이	상	하		(	발	으	마	)		아	이	고		그	말	습	나	라
				옥	려		아	나	,	속	라		모	킨	드		보	살
				제		배	워	서		이	걸		준		만	들	어	뒤
				라	,	각	음	이		왔	어		마	시	게		알	것



목	례	예,	꼭	그	걸	게	유.													
이	상	관	안	녕	위	계	삼	시	오.	제	가	다	시	은						
			래	카	리	목	례	와	숙	과	를	잘	부	관						
			함	나	라.															
보	살	아	이	구	영	려	마	담	시	은.	제	가	누							
			함	나	카	은.														
		이	상	관	와	목	례	보	살	에	제	잘	하	고						
		향	흥	우	르	나	간	라	(	되	갈	)								
보	살	(	그	들	의	뜻	모	습	을	함	함	보	고							
		와	가	가	향	에	올	라	기	시	삼	관	씨	에	제	시	받	은	증	서

를 <sup>가되어</sup> ~~공공~~ ~~공공~~ ~~공공~~ 이 (이) ~~공공~~ 는 )  
 됐다. 바를 이거라. 이것만 있으  
 면, 있으면 . . . . . 품속에 넣는다 )  
 무대 한층 어두워진라. 먼 곳에서  
 수점수의 울음소리 간간이 들리다.  
 보살 (이래까지와 달라진 사람으로)  
 아. 이 쓸쓸한 암자에서  
 울음을 ~~선~~ ~~했~~ 구나. 옛날부터 사발  
 은 주승 (道僧) 신세라 했는데  
 나는 머리는 깎지 않았어. ~~공공~~

				중	이	리		러	트	"	"	"	.	기	생		농	화	가		
				중	노	릇	을		한	다	?			이	끝	를		나			
				창	흔	을		느	귀	라	고	.		안	필		말	이	지	,	
				일	어	서		가	사	와				강	심	을		벗	어	뿌	라
				리	에			결	고												
				가	사	,		강	심		흥	!		이	것	들	르			이	레
				부	편			살	레	었	라	.		이	권	은		부	문	에	
				불	은			가	사	가				라	무	야	.	새	삼		세
				상	이			그	림	라	.			돈	과		남	라		술	라
				사	랑			그	것	이				나	레	느		갈	구	를	플

와 주느 감 로 수 다. 아 사 나 이 들  
 의 품 신 한 가 능 혁 미 그 령 구 나  
 ( 양 한 전 의 각 은 무 감 의 사 손  
 각 을 을 쥔 의 내 의 ~~발~~ 권 을 권 가 의  
 일 관 을 비 추 의 보 마 ) 이 검 은  
 사 마 기 . 이 것 의 농 과 가 승 작 리  
 창 의 보 살 이 될 구 의 야 ( 가  
 무 감 의 사 물 안 방 을 적 내 의 목 정  
 을 알 아 손 가 각 의 물 혀 사 마 기  
 를 래 내 고 ) 오 ~~주~~ 라 ~~아~~ 라 내 미 식

				은	아	간	즈	변	리	않	았	구	나.	세	장	
				사	나	들	이	이	얼	굴	어	반	했	리.		그
				렸	어	돈	즈	영	예	르	목	순	카	리	르	
				바	랐	제.		이	얼	굴	어	혹	호	"	"	"
				(	라	시	화	장	물	을	잡	어	내	어	서	화
				강	을	하	고	라	시	가	물	을	보	고	)	
				만	족	스	런	비	쇼	를	찍	은	바.	사	마	리
				중	이	내	사	서	품	속	에	넣	고	화	장	
				그	를	을	위	운	라	고	그	라	고	는	성	냥
				활	아	혹	불	을	견	과.)						

보	살	욕	례	가	을	그러	가	했	는	제	—	나	를
		보	만	들	라	겠	지	?	가	만	있	다.	(생
		는	과	와	)	그	러	(	무	슨	결	심	을
		한	들	)	을	들	리	위	동	의	화	야	리
		물	의	사	사	마	키	를	리	니	어	얼	굴
		물	이	고	경	전	(	經	典	)	을	읽	는
		것	다.										
		이	러	욕	례	등	강	한	다.				
욕	례	스	부	들	했	어	리	안	할	나	다.		
보	살	대	감	은	갈	가	시	고	?				

음	례	예	-																	
보	살	라	그	라	면	숙	차	플	늘	화	주	고	갑							
		시	가	보	아	라	.	아	머	4	가	기	라	리						
음	례	예	-																	
보	살	숙	라	배	고	뜨	갓	라	.	졌	의	나								
음	례	예	-																	
보	살	오	늘	은	실	것														

시갓라

갓

			적	익	이	는		유	래	를		재	려	보	자		부	는				
			적	심	을			하	고	는		품	속	에	서		칼	을	겨			
			나	어				부	려	본	자	는	살	을		등	뒤	에	숨	어	간	라)
유	래		(	적	을		자	막	이	고		가	슴	을		여	미					
			머	을	어	서)		스	만			오	늘	밤	은		숙					
			자	를			부	관	할	나	자											
보	살		오	날			나	어		가	보	아	라									
유	래		안	녕	히			주	무	우		(	적	한	고		들	아	신	다)		
보	살		부	려	니																	
유	래		데	어			(	들	아	어		부	관	주		부	자	)				



부	라	에	있	/	(	소	라	와	같	이	자	를	부
		려	의			<del>가</del>	<sup>바</sup>	<del>수</del>	<sup>를</sup>		지	를	라)
부	려	와	있	!!	(	<del>가</del>	<sup>바</sup>	<del>수</del>	<sup>를</sup>	알	고	신	크
		보	-	보	,	(	신	크	적	비	등	가	라
		사	리	를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는	라)		
부	라	(	부	려	의	시	려	를	중	과	부	마	리
		부	를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sup>부</sup>
		부	일	리	구	나	새	상	의	함	라	의	에
		부	아	리	가	있	을	수	있	겠	나	!	
		재	부	부	라	는	소	라	가	나	자	신	이

				이	래		어	리	애		수	래	너	우		을	라		갈
				을			르	루		문	수		우		남		삼		상
				각	라	가		우	래	너		리	마		라	코	라	권	
				벗	라	우	루	우	사		가	기	우		문	문	우	문	상
				아			우	래	너		시	신	우		우	하	우		그
				웃	으	르		갈	아		있	느	라		우	남	우		우
				을			래	너	사		우	래	너		우	남	우		우
				다			<	잠	잠		섯	라	가		우	우		갈	권
				가	사	라		우	우	가	리	를	물		방	우	각	에	이
				라	라	라		우	우	리	라		라		그	라	우		우

				성	각	라	가			이	성	하	시	어	게	서	받	은	돈	봉	투
				를		죄	나	어		지	죄	무	키	들			범	안	보	고	
				수		그		반	꿈	을		백	리	라.		그	라	고	노		
				우	수		어	관	아	이	를		들	쳐	업	고		방	안		
				을		들	라		보	고											
동		라		이	만	라	면		창	심	보	살	이		장	르	의		갈		
				네		질	러		죽	었	라		와	겠	리.		(	그	러		
				고	는		후	를	을		고	고		나	왔	라	가		쿠		
				위	를		살	리	고		산	은	를		들	어	간	라.			

			무	대	는		어	두	위	지	는		레		김	석	봉		관			
			결	에	나		하	리	를		꾸	부	리	고		살	장	살	관			
			그	림	간	취	결		결	어	나	외	서		사	방	을		들			
			러	보	고	는		고	개	를		가	우	똥		하	고	관	며			
			방	으	르		들	어	간	다.												
김	석	봉					이	게	취	하	야	?		방	바	락	에		물	들	삼	
소	라	영					아	나	?												들	
							아	나	?		다	이	고		사	람	의	구	만		(빠르	
							게		찍	어	나	와)			그		이	삼	관	지	?	
							사	람	이	변	말	이			있	을	러	인	레	...	(가	
							시		들	어	가	서			볼	을	겨	서		삼	관	며)



농 라 약 ! 강 신 누구 은 ?!

김 석 봉 창 심 보 살 아이 를 잃 고 서 이 밤

세 서 리 르 가 래 고 ?

농 라 나 ... 나 창 심 보 살 아 나 은 .

김 석 봉 그 럼 강 신 누구 은 ?

농 라 무 ... 옥 레 ...

김 석 봉 옥 레 ? ... 너 가 왜 보 살 을 주 었 나 ?

농 라 자 ... 자 드 루 이

김 석 봉 활 활 , , 창 심 보 살 , 옥 레 가 눈 을 <

감 리 못 래 고 강 신 을 보 고 잊 지

암수 9

농라 사람을 잘못 보냈지요,

김석봉 네가 사무처는 옛리만 그 일 끝

과 음성은 <sup>4개</sup> 보를 라 갔나.

농라 에 왔어!

김석봉 유례를 죽인 청심보살이 유례를

든 감례서 이 함판 마보스를 들어

간라? 그럴 법한 수각연래 . . . .

라 리 만 그 수각을 네가 알 아 버

려서 미안 라오. 헛판 " " " " .

농	작	(	과	도	를	비	꾸	나	산	농	스	컬	레	)
			의	보	감	상	껏	당	신	이	그	만	큼	안
			다	나	러	습	조	수	있	겠	소			
<del>농</del>	<del>작</del>	(	교	성	으	르	)	어	보	-	감	상	원	-
감	석	봉	말	라	시	오								
농	작	아	이	,	그	리	등	망	스	컬	레	말	라	리
		말	하	으	.	리	하	아	는	러	수	에	-	-
		내	가	무	엇	때	무	인	리	감	주	사	는	아
		심	나	까	?									
감	석	봉	돈	-										





				꿈	먹	자	느	거	아	나	오	.							
김	석	봉		.	.	.	.	.											
농	관			우	리	가		가	면	을	쓰고	이	금	강	산	에	서	살	
				아		보	았	자		무	슨	크	든	이		생	기	겠	
				소	.	나	르		알	고	보	면		이	상	하	서	가	
				일	주	일	만	도		관	변	씩		주	고		가	드	
				그		수	임	으	르		살	고		있	라	고	.	당	신
				드		알	고		있	지	만		이		산	흔	에		돈
				가	직		노	름	꾼	이		있	소	.	구	경	꾼	이	
				흔	관	계		있	소	!		나		돈	을		칼	나	서

				여	기	라	리	우	랑	신	의	생	활	을	질
				각		화	개	소							
김	석	봉		.	.	.	.	.							
농	관			김	주	하		우	들	여	기	에	갈	왔	는
				라		우	라	이		생	활	을	걸	어	리
				공	생	을		구	동	보	리	당	을	래	은
김	석	봉		나	다	생	을	우							
농	관			상	신	만		임	을	관		봉	하	고	있
				우	우	나	가	들	마	루	기	들	너	라	주
				다		말	이	오							

김	석	보	나	말	가	만	있	으	면	참	심	보	살	이	
			이	행	관	심	의	들	어	갔	어	그	기	수	을
농	과		말	수	만	약	에	강	신	이	나	가	부	려	
			를	구	원	라	고	고	발	을	하	면	나	는	
			강	신	이	살	의	강	조	질	한	귀	상	을	말
			카	리	행	을	수	만	강	수	그	려	려		
			진	면	우	리	들	의	갈	곳	이	라	죽	을	
			어	나	면	감	목	밖	에	저	있	겠	소	?	
김	석	보	참	고	려	수									
농	과		그	려	나	내	가	계	획	한	일	을	우	리	

				같이		상용		시킴		시라.											
김	석	봉		내	아	무		돈	만	금	다	면	아								
농		라		그	것	은		없	리	마	오										
김	석	봉		거	짓	말	은	없	겠	리	요	?									
농		라		내	가	약	속	을		너	기	면	당	신						성	미
				에		가	만	있	겠	소	?										
김	석	봉		가	만	안		있	기	요											
농		라		그	럼		우	리		아	도	금	함	시	라						
김	석	봉		뭘	요	?															
농		라		나	와		함	게		이	함	관	대	는	것	을					때

				강	선	은		누	구	나	=	은		물	거	든	,	내		며		
				등	살	이	라		레	라	고			밖	라	고			그	러	세	은
김	석	봉		말	하	자	만		상	객	일	나	라						그	러		
농		라		그	러	리	우															
김	석	보		그	러	러	,		이		밤	중	에		등	간	을			들	고	
				나	가	를			가	러	고				그	러	오	?				
농		라		아		에	,		이	행	황	이			죽	었	는지			살	았	는지
				리		이			수	우	르				살	아			만	러	고	.
김	석	봉		얼	러				바	나	오											
농		라		무	슨				말	이	오	?										

김	석	봉	(	품	속	에	서	지	감	을	저	니	노	비	각	
			에	락	의	따	)	이	계	문	글	말	의			
			로	보	살	남	?									
동	관		아	니		그	것	?								
김	석	봉	에,	상	관	가	관	은	가	하	는		그	사	관	
			도	리	감	이	고									
동	관		그	것	을	어	떻	게	?							
김	석	봉	저	승	가	는	사	관	에	게	부	는	돈	이		
			필	요	하	겠	습	나	가.	그	돈	을	내	가		
			가	리	려	고	뒤	를		<del>주</del> <del>가</del> <del>가</del> <del>가</del>	가	러	나	관	말	




김	석	봉	화	그	런	을	그	이	아										
농	관		도	한	가	리	의	산	관	계	있	는	데						
김	석	봉	무	대	은	?													
농	관		뜻	을	수	습	이	데	,	이	래	로	우	라	가				
			려	나	바	리	면	,	우	들	밖	이	나	나	의				
			아	침	이	우	레		나	어	나	가	밖	이	은	리			
			를		상	갓	소	?											
김	석	봉	관	래	리	라													
농	관		그	라	면		우	라		을	의	밖	갓	리	리				이
			갓	소	?														

김	석	봉	그	러	나	카	루	모	녀	를	갈	이	다	시	
			는	은	심	거	정	있	는	은	크	크	으	르	보
			나	가	의	가									
농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김	석	봉	그	러	나	카	루	모	녀	를	갈	이	다	시	
농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수	의											
김	석	봉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농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치	권			버	권	△	라.								
김	석	보		안	간	에	라			불	을	질	려		화	강	카	리	
				하	회	라	라		그		밖	이	지	도.					
노		관		이	관	기		순	이		밖	밖	을		누	가.		라	
				판	관		감	시	라.		(	부	의		아	이	를		추
				스	관	라	)		다	이	구		내	사	라		를	것	라.
김	석	보		스	관	△		기	관	라	리	외	이						
노		관		유	관		△	관	와	는		같이			관	수	있	어	라
				보	관	에	△		시	관	△	기	관	관	△				
김	석	보		보	관	남	은		누		보	려	기		그	관		가	라

